

H
811.6
77537

碩士學位論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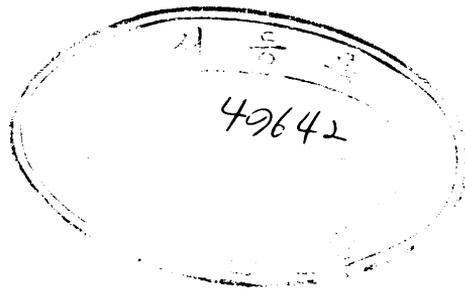
金洙暎 詩의 現實 認識 研究
－ 類型과 樣相을 中心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康 榮 起



1998年 12月

金洙暎 詩의 現實 認識 研究

- 類型과 樣相을 中心으로

指導教授 金 昞 澤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8년 12월 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提出者 康 榮 起

康榮起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8년 12월 일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The study of cognition appeared
in Kim Soo-Young's poems
- On the focus of the type and the aspect**

Young-Gi, Kang

(Supervised by Professor Kim, Byung-Taek)



A THESIS SUBMITTED IN PA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8. 12.

目 次

I. 緒 論	1
II. 현실 인식의 이론	8
III. 현실 인식의 유형	12
1. 사회 참여를 통한 현실 인식	12
2. 생활 체험을 통한 현실 인식	17
IV. 현실 인식의 양상	22
1. 세계의 응시와 비극성	22
1) ‘바로 봄’의 의미	22
2) ‘전쟁’ 과 설움	27
2. 현실의 확인과 자유의지	34
1) 현실참여 지향과 자유의지	34
2) ‘敵’의 의미	39
3. 일상성의 발견과 인간성 회복	42
1) 소시민적 삶의 태도와 극복	42
2) ‘사랑’의 확인	47
V. 金洙暎 詩의 詩史的 意義	55
VI. 結 論	57
참 고 문 헌	60
<Abstact>	

I. 緒論

金洙暎은 해방과 더불어 모더니스트 시인으로 출발한 이래, 민족적 비극인 6·25를 거치는 50년대와 4·19, 5·16을 경험하는 60년대에 이르기까지 해방 이후 한국사에서 가장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치면서 서정주·김춘수와 함께 우리 시단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남긴 시인 중의 한 사람이다.¹⁾ 그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남긴 시인일 수 있었던 것은 1947년 동인지 『詩人部落』에 시 <廟廷의 노래>를 발표함으로써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래 遺稿詩 <풀>에 이르기까지 173편의 시·시론·산문·희곡·번역 등 문학의 여러 영역에서 자아의 진실을 구현하기 위한 치열한 정신적 작업을 통해 역사적 상황 속에 갇힌 인간 존재의 비극적인 모습들을 잘 형상화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金洙暎은 이러한 이유로 1970년대 이후 많은 비평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의 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나 평가의 출발점은 1968년에 발표된 백낙청의 <金洙暎의 시세계>와 김현승의 <金洙暎의 시사적 위치와 업적>으로부터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²⁾

백낙청은 단편적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金洙暎의 시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金洙暎의 시에 대하여 “모더니즘의 실험을 통해 얻은 유산인 현대적 감각과 지성의 작용을 자신의 서정적 자질과 잘 결합시켜 일상적인 소재와 언어 속에 용해시킴으로써 독자적 시세계를 확립하는 데에 성공한 시인”³⁾인 동시에, “시에 대한 철저한 회의를 통해 시에 대한 가장 완강한 신념을 구현한 행동의 시인”⁴⁾이라고 하였다. 김현승은 金洙暎을 “오늘의 한국 시에 문제를 던지고 그것들의 해결을 위하여 가장 과감한 시적 행동을 보여주던 투명하고 정직한 시인”⁵⁾이라고 전

1) 김윤식·김 현, 『韓國文學史』, 민음사, 1984, p. 272.

2) 물론 金洙暎의 생전에 쓰여진 유종호나 김현승의 또 다른 글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金洙暎과 모더니즘과의 관계 설정이나 그의 참여 문학적 속성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면 짧은 月評의 성격을 면치 못하는 글이라 할 수 있다.

3) 백낙청, 「金洙暎의 시세계」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68, 9.

4) 백낙청, 앞의 책.

제하고 “언어의 예술성과 시의 사상성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순수 아니면 참여의 편식적 경향을 보이던 60년대 한국 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시인”⁶⁾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평가는 개별적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것들을 종합한 결과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주로 모더니즘이나 현실감각과의 관련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단편성을 면치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평자들에 의한 金洙暎 시에 관한 연구 방향은 그의 시를 내용적인 면에서 논의한 것과 형식적인 면에서 논의한 것, 시와 시론을 분류시켜 시론만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내용적인 면에서의 논의는 다양한 각도로 이루어졌는데, 순수와 참여의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이어령과 백낙청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이어령은, 문학은 정치화되어서는 안 되며 독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⁷⁾고 주장하면서 金洙暎과 논쟁을 벌였다. 그는 ‘불온시가 과연 좋은 시일까’라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金洙暎의 불온시 개념⁸⁾을 다소 협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낙청은 <참여시와 민족문제>에서 정치권력의 강압에 대한 金洙暎의 정열적이고 발도 제대로 작품화되지 못해 결국은 자신과 이웃의 소시민성을 풍자하는 일에 머문⁹⁾ 민중 시인으로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한편, 모더니즘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염무웅과 김주연의 글을 들 수 있다. 염무웅은 1950년대에 있어서 金洙暎의 문학 활동은 문예 운동으로서의 모더니즘과 언제나 일정한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언제나 모더니즘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외국 문학의 젓줄을 떼지 못한 도시적 지식인으로서의 모더니즘을 청산하고 民衆詩學을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¹⁰⁾고 비판한다. 김주연은, 김경린·이한직·박인환·박태진 등과 이른바 모더니즘 운동을

5) 김현승, 「金洙暎의 시적위치와 업적」 「창작과 비평」, 창작과 비평사, 1968. 겨울.

6) 김현승, 앞의 책.

7) 이어령, 「서랍속에 든 불온시를 분석한다」 「사상계」, 1968. 3월호.

8) 金洙暎은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예술은 본질적으로 불온하다’는 입장에서 ‘불온시’라는 어휘를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9) 백낙청, 「참여시와 민족문제」 「金洙暎의 문학」, 민음사, 1983.

10) 염무웅, 「金洙暎論」 「金洙暎의 문학」, 민음사, 1983.

별인 金洙暎이 이들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점을 ① 강력한 문명 비판의 기치 ② 외래어의 과감한 사용 ③ 자의식의 표현 ④ 암시의 불명료성 등으로 파악하고 모더니즘을 통틀어 교양주의로 정의한다. 그는 金洙暎의 詩도 교양주의에서 출발하고 있다¹¹⁾고 주장한다.

시의 주제를 자유·사랑·정직의 측면에서 파악한 것¹²⁾은 金洙暎 詩에 관한 기존의 연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김우창은 <예술가의 양심과 자유>에서 金洙暎을 어느 한 선 위에서 좌표가 결정되는 시인으로 보지 않고, 독자적인 공간을 가진 시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金洙暎은 그의 예술의 절대적인 자유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유의 요구를 끌어내었으며, 그의 시의 이론도 예술가로서의 양심의 결백성에 대한 신념에서 나온다¹³⁾고 주장한다.

김 현은 <자유와 꿈>에서 金洙暎 詩의 밑바탕을 이루는 중요한 구조로 자유를 도출해 낸다. 따라서 그는 “金洙暎은 엘뤼아르처럼 자유를 자유 그 자체로 노래하지 않고 시적, 정치적 이상으로 생각하며, 그것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여건들에 대해 노래한다”¹⁴⁾고 주장한다.

특히 김종철은 金洙暎시의 시적 감동이 시인의 자의식이나 개인적인 편견에 방해되지 않는 삶에 대한 깊은 자상한 관심으로부터 우러나오며, 이러한 관심이 원숙하게 성취된 본보기¹⁵⁾로 <풀>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의 연구들은 단편적이고 도식적인 비평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한 측면에서 얻어진 결론이 전체에 대한 결론으로 확대되어 버리는 위험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로서 <풀>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詩 속에 숨겨진 리듬

11) 김주연, 「교양주의의 붕괴와 언어의 범속화」, 『정경문화』, 1982. 5월호.

12) 시적 주제는 ‘자유’, ‘사랑’, ‘정직’의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 중 ‘자유’를 시적 주제로 보는 연구로는 김 현의 「자유와 꿈」, 김우창의 「예술가의 양심과 자유」, 임중빈의 「자유와 순교」 등이 있고, ‘사랑’을 시적 주제로 보는 연구로는 김종철의 「시적 진리와 시적 성취」, 유종호의 「시의 자유와 관습의 굴레」 등이, 그리고 ‘정직’을 시적 주제로 본 연구는 김인환의 「한 정직한 인간의 성숙과정」, 이성복의 「진실에 대한 열정」, 황동규의 「자유와 공간」 등이 있다. (이상 「金洙暎의 文學」 참조.)

13) 김우창, 앞의 책.

14) 김 현, 앞의 책.

15) 김종철, 앞의 책.

의 구조를 밝힌 것으로는 김 현과 서우석 등의 글이 있다.

김 현은 <풀>을 金洙暎 정신 편력의 한 극점으로 보면서, 리듬 상으로 볼 때 두 박자의 구조를 갖춘 시로 평한다¹⁶⁾. 즉, 두 박자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내적 원리로, 4·4조의 리듬을 수용하고 있는 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의미론적 분석을 통하여 동사의 시체가 현재/과거로 대립되어 있으며, 그 반복적 움직임은 ‘눕다/일어서다, 울다/웃다’의 대립 위에 세워져 있음을 주장한다.

서우석은 金洙暎의 시가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리듬과 싸운 흔적이 있다¹⁷⁾고 평한다. 그는 金洙暎의 산문을 읽어보면 매끄럽게 읽히는데 그 이유는 글의 리듬을 판단하고 리듬의 호흡을 느끼는 본능적인 감각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金洙暎은 절제와 세련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시를 쓰는 데에 있어서 리듬의 문제에 고통을 감수하며 도전했기 때문에 더욱 값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명에 나타나는 지나친 주관성이 논리적 설득력을 잃게 하고 있다.

이들의 논의는 개별적 작품의 특성으로는 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나, 金洙暎 시의 일반적 또는 보편적 특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시론만을 대상으로 하는 논의¹⁸⁾는 김윤식, 송재영, 이상옥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金洙暎의 시론을, 한 시대의 회생물과 같은 ‘고뇌의 장’이라 결론을 내리고 그의 산문, 시론을 통해 시에 나타나는 준엄한 자기 반성, 인간 회복에의 의지, 자유 회복에의 집념, 사랑과 죽음의 관계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김윤식은 金洙暎의 <詩여 침을 뱉어라>의 분석을 통해 金洙暎의 시론이 참여시론이 아닌 순수한 시론으로 보고 있다. 그는 金洙暎 시론의 중심을 모호성에서 찾았고, 이러한 모호성은 金洙暎의 인식 구조의 첨단에 있고, 이 모호성 때문에 현실의 ‘무한대의 혼돈’에의 접근이 가능하다¹⁹⁾고 주장한다. 金洙暎에게 있어서 시론

16) 김 현, 「金洙暎의 풀 : 웃음의 체험」, 『한국 현대시 작품론』, 문장, 1981.

17) 서우석, 「金洙暎 : 리듬의 회열」, 『문학과 지성』, 1978. 봄.

<번곳에서부터>, <눈>, <꽃잎(-)>, <꽃잎(-)>, <헬리콥터>의 분석을 통해 리듬의 반복성을 추출하고 있다.

18) 김윤식, 「시에 대한 질문방식의 발견」, 『시인』, 1970. 봄.

송재영, 「시인의 시론」, 『문학과 지성』, 문학과 지성사, 1976. 봄.

이상옥, 「자유를 위한 영원한 여정」, 『金洙暎의 문학』, 민음사, 1983.

19) 김윤식, 앞의 책.

은 시와 별개의 것이 아닌 자신의 시를 대변하고 반성해 나간 자취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시론만을 토대로 金洙暎을 논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金洙暎 연구에 있어서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시적 변모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망하는 글이 적다는 점이다. 이것은 金洙暎의 시에 관한 연구들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데에서 기인한다. 둘째는 한 측면에서 얻어진 결론이 전체에 대한 결론으로 확대되어 버리는 위험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金洙暎 詩에 관한 연구는 다각적인 면에서의 연구보다는, 하나의 관점을 정해 이루어지는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문학은 현실의 반영이다. 즉, 예술 작품은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인식을 가치 지향적 자기 인식의 형태로 표출한다. 金洙暎이 “현실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더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은, 이 뒤떨어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시인의 태도이다. 오늘날 우리 현대시의 양심과 작업은 이 뒤떨어진 현실에 대한 자각이 모체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우리의 현대시의 밀도는 이 자각의 밀도이고, 이 밀도는 우리만의 비애를 가리켜준다.”²⁰⁾고 밝힌 바 있다. 詩는 삶의 구체적인 양상으로서의 현실과 이를 인식하는 시인의 의식 사이에 지속적으로 대립·갈등하는 긴장 관계의 산물이다. 즉 현실적 삶에서 느끼게 되는 기쁨과 슬픔의 경험에 대한 해석과 조명이 詩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金洙暎 시에 나타나는 현실 인식의 유형과 양상을 연구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러한 점과 깊이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의 의도를 실천하고자 할 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金洙暎의 詩는 삶의 구체적인 양상으로서의 현실과 이를 인식하는 시인의 의식 사이에 지속적으로 대립·갈등하는 긴장 관계의 산물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시의 본질이 현실 세계와 유리된 완전하고도 독립된 세계라고 할 때, 그 말은 시적 경험이 시 이외의 것을 통해서 얻는 경험과 전혀 다르다는 전제 아래에서

20) 김수명 편, 『金洙暎 전집Ⅱ- 산문』, 집문당, 1983, p. 350.

만 타당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시적 경험과 시 이외의 것을 통해 얻는 경험은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며 다른 세계라는 특수성(other-worldly peculiarity)을 갖는 것도 아니다. 경험의 기저를 이루는 인식을 연구하는 것은 시인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²¹⁾

셋째, 현실에서의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심도에 따라서 시인의 현실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의 하나는 현실이라는 가장 절실하고 새로운 제재에 가로놓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매진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에서의 자기 자신의 위치를 분리시켜 시대를 초월한 입장에서 인간성을 노래하는 태도이다. 詩가 현대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비인간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현대 문명 속에서 더욱 인간적인 것을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식이 필요하다. '참여'와 대비되는 '순수'라는 이름으로 개괄되는 이러한 시가 결코 나태한 정신의 소산일 수 없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²²⁾ 따라서 시의 본질적인 조건을 시인 자신이 처한 현실적 상황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 논문에서 주로 사용한 연구 방법은 사회학적 비평 방법이다. 사실 이 비평 방법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두루 포괄하는 아주 폭넓은 영역에 적용된다. 이 비평 방법이 때로는 역사 비평 방법이나 심리주의 비평 방법 또는 신화 비평 방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 세 가지 비평 방법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학적 비평 방법은 사회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작가가 사회 환경에 반응하는 방법과 정도에 관심을 가지는 비평 방법이다.²³⁾

이 논문에서는 金洙暎의 문학 작품들에 나타나는 현실 인식의 유형들을 분류하고 이를 현실 인식의 양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즉 그가 시작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해방과 6·25, 그리고 4·19를 통해 시대와 현실을 어떻게 인식했고 그것을 어떻게 작품에 반영했으며 이를 어떻게 시적 주제로

21) 김병택, 「시인의현실과자유- 金洙暎論 I」 「바벨탑의 언어」, 문학예술사, 1986, p. 60.

22) 정한모, 「현대시의 현장」, 박영사, 1983, p. 35.

23) 김옥동, 「〈광장〉을 읽는 일곱가지 방법」, 문학과 지성사, 1996, p. 228.

형상화시키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한 텍스트는 『金洙
暎 전집 I』(민음사, 1983)임을 밝혀둔다.



Ⅱ. 현실 인식의 이론

시는 삶의 구체적인 양상으로서 현실과 이를 인식하는 시인의 의식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대립·갈등하는 긴장 관계의 산물이다. 즉 시는 현실적 삶에서 느끼게 되는 기쁨과 슬픔의 경험에 대한 해석과 조명이다. 따라서 시를 현실 인식의 한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시는 당대 사회 현실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를 읽는 '인식의 틀'로 작용한다.

시에 있어서 인식이란, 효과있는 묘사이다. 묘사는 '구체적으로 그려진 본질'을 통해 시적 효과를 추구하면서 시에서의 구체성을 찾아낸다. 구체성은 인간 의식 내부의 사상을 사물화하고 구체적인 구상들이 시적 언어로 끝나버림을 방지한다. 이러한 일련의 효과는 인식이라는 문제를 새로이 제기하는데 그것이 곧 사물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다.²⁴⁾ 따라서 묘사는 시를 통해 형상화되는 작가 의식의 존재 양식이다.

시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현실, 시인의 의식, 그리고 언어이다. 시에 있어서 '현실'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일차적으로 시 속에 반영되어 있는 현실을 뜻하지만 서정적 주체²⁵⁾로서의 시인 자신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서정적 주체를 시인의 창조적 자아가 객관화된 시적 형상이라고 규정한다면, 서정적 주체는 객관 현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고양되고 집중된 시인의 의식과 정서적 반응, 그리고 세계에 대한 태도 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작의 실제에 있어서 현실은 하나의 소재이다. 소재를 통해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될 때, 그 과정에 작용하는 것이 시인의 세계관 및 상상력이다. 하지만 시인의 세계관과 상상력은 형상화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변용을 거쳐 작품 속에 드러난다. 즉 작품 밖의 현실이 거울에 비추어지듯 그대로 작품 안에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주체적 활동과 작품이 지닌 형식적 특성에 의해 '특수한 종류의 반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특수한 종류의 반영이란, 창작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인식의 한 방

24) 정현종 外 2人, 김주연, 「시의 의식의 문제」, 『시의 이해』, 민음사, 1994, p. 28.

25) 서정적 주체란 시의 내용과 형식을 이루는 서정적 체험과 그것에 대한 진술을 통해서 독자에게 객관적 현실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주체를 의미한다.

법, 즉 시적 사유가 갖는 독자성을 의미한다.

시인의 의식은 시인의 현대 속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규명하는 척도이다. 현실에 위치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바탕이 되어야만 자기 자신의 생(生)에 대한 태도, 주체적인 사고와 행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인의 의식에 의해 현실에 대한 태도는 크게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 매진하는 참여의식과, 인간성의 영원한 면을 부각시키면서 내면세계를 제시하는 순수의식으로 나타난다.

또한 시에 표현된 정서는 주관적·객관적 관계를 통해 획득된 현실에 대한 인식과 가치평가, 태도 등이 포괄되어 있다. 소설에 비해 짧은 내용을 가지고서도 시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삶에 대한 반성적인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정서가 가진 직접적 호소력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인식, 태도, 가치평가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시는 서정적 주체가 환기하는 정서를 통해서 독자의 정서에 직접적으로 호소함으로써, 독자의 자기의식을 강화시켜줄 뿐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세계에 대한 태도와 인식, 가치평가 등을 통해 독자의 삶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언어를 통해서 구현되는 모든 종류의 표현방식은 정서의 내용과 질을 확인케 해 줄 뿐 아니라, 어휘를 선택하고 그것을 결합해서 완결된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억양, 어조 등 한 개인의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 혹은 세계에 대한 태도, 인식, 가치평가 방식 등도 함께 드러내준다.²⁶⁾

그러므로 현실 인식의 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시는 현실을 형상적으로 인식한다. ‘형상적 인식’은 시적 인식의 자율성 혹은 특수성이다. 특수성이란 개별성과 보편성을 역동적으로 매개하는 범주이다. 과학과 같은 이론적 인식이 개별성에서 보편성으로 운동하는 데 반해, 예술은 개별성과 보편성 양쪽으로 그리고 다시 중심적인 특수성으로 수렴된다. 따라서 특수성은 보편성이 포함된 개별성 혹은 개별성을 통해 보편성을 드러내는 범주이다. 그러므로 시적 인식의 자율성 혹은 특수성으

26) 이은봉 엮음, 오성호, 「시에 있어서의 리얼리즘 문제에 관한 시론」 「시와 리얼리즘」, 공동체, 1993, p. 25.

로서의 형상적 인식은 현실을 개괄·전유하는 데에 있어서 몇몇 독특한 자질로 응용하고, 이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형상이다.

리얼리즘론에서는 흔히 사회학적 현실 인식(반영)의 특징과 비교하여 문학적 현실 인식(반영)의 특징을 ‘형상’으로 들고 있다. 작품 밖의 현실이 거울에 비추어지듯 그대로 작품 안에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주체적 활동과 작품이 지니는 형식적 특성에 힘입어 ‘특수한 종류의 반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학적 인식의 자율성이라고 할 때 그것이 보유하고 있는 실체를 ‘형상’으로 정의한다.²⁷⁾

형상의 자질, 즉 형상을 형상으로 이끄는 주요 요소는 비유(상징이며 알레고리를 포함한 비유 일반)와 묘사(언어로 그리는 그림)로부터 발생하는 ‘이미지’, 서사의 실체인 ‘이야기’, 리듬과 어조로부터 비롯되는 감정(정서 일반을 포함하여)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각각의 ‘이미지’, ‘이야기’, ‘감정’은 형상의 한 부분일 따름이지 그 전체는 아니다. 하지만 그 전체인 형상 자체가 그렇듯이 이들 형상의 자질은 각기 유의미한 의식지향, 즉 시적 진리를 시 내부에 함축한다. 시에서 주제 또는 사상의 표현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에 있어서 시인의 현실인식이라는 현실 경험의 의식은 직접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적 意匠과 시가 지니고 있는 장르적 관습과 결합되어 시적 구조를 이룬다. 따라서 시의 현실 인식은 사회 과학과는 달리 ‘응축된 현상’을 매개로 하고, 응축된 현상은 이야기·이미지·감정을 그 주요 자질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 자질들이 추구하는 유의미성이 시의 세계관으로, 내용(주제)으로 자리 잡는다.

현실 인식의 방법은 형상의 내용적 측면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내용적 측면의 요소 중 하나가 시를 통해 존재하는 유형과 양상이다. 현실 인식의 유형이란, 단순한 외면적 지각 이상의 이해 작용을 전제로 생(生)의 전 관련에서 대상의 뜻하는 의미를 내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내포하는 의미의 개체들 속에서 일정한 복합점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실을 인식하는 유형은 크게 ‘순수와 참여’, ‘대상과 비대상’ 등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생활 인식과 사회 인식’, ‘죽음 인식과 현실 인식’ 등으로 나누어 나타낼 수도 있다.

27) 이은봉, 『한국현대시의 현실인식』, 국학자료원, 1993, p. 35.

현실 인식의 양상은 유형을 통해 존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어느 한 작가의 작품들 속에서 일반적인 현실 인식의 유형을 토대로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작가의 의식이나 세계관 또는 주제로 표출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시속에 나타나는 현실 인식의 유형과 양상은 시인(작가)이 시속에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대상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추적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현실 인식의 내용적 측면을 토대로 시를 분석할 때, 그 시가 지닌 형식적·미학적 특징 또한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



Ⅲ. 현실 인식의 유형

문학을 현실의 반영으로 볼 경우 '현실'을 느끼게 하는 요소는 바로 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과정에 들어 있다. 따라서 시란 삶의 구체적인 양상으로서의 현실과 이를 인식하는 시인의 의식이 지속적으로 대립·갈등하는 긴장 관계의 산물이다. 대체적인 경우, 시는 현실적 삶에 등장하는 것들에 대한 해석과 조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는 시인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의 삶의 의의를 정립시켜 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현실에서의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심도에 따라서 시인의 현실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²⁸⁾ 첫째는 현실이라는 가장 절실하고 새로운 제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맞서서 거기에 가로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진하는 경우로 흔히 참여 의식을 드러내는 태도이고, 둘째는 현실에서의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 시대를 초월한 입장에서 인간성의 영원한 면을 노래하는 태도이다.

이 장에서는 자신이 처한 현실의 구조적 모순과 역사적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현실 인식의 유형을, 크게 사회 참여를 통한 현실 인식과 생활 체험을 통한 현실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시인이 처한 현실과 시의 본질적인 조건들을 어떻게 형상화시키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사회 참여를 통한 현실 인식

해방 이후의 우리 나라 현대사를 놓고 고찰해 볼 때 1950년대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혼란과 고통이 극심한 시기였다. 예를 들면 당시의 혼란상은 史學者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28) 정한모, 앞의 책, p. 35.

이승만의 독재체제는 그 추종자들의 '과잉충성'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더욱 강화되어 갔다. 그와 함께 부통령으로 당선된 야당의 장면이 피격되는가 하면,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과 맞섰던 진보당 당수 조봉암이 간첩혐의로 처형되었다. 또한 야당의 반대를 경찰력으로 저지하고 신(新)국가보안법을 강제 통과시키는가 하면, 폭력단을 중심으로 반공청년단을 조직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야당계의 <경향신문>을 폐간시켰다.²⁹⁾

이러한 사회적 현실의 상황 속에서 金洙暎은 사회 참여를 통해 현실을 인식하고 행동하려는 작가로서의 본질적인 고뇌를 피력하고 있다.

나는 작가의- 만약에 내가 작가라면- 사명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타락해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극장에, 이 거리에, 저 자동차에, 이 타협에, 이 체념에 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³⁰⁾

현실을 직시하면서 시를 통해 자신의 진실과 사회적 정의 그리고 자유의 실현을 끊임없이 노력해 보지만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 삶은 자유를 용납해 주지 않는다. 그는 <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자신에게 반문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작가로서의 사명감을 각성, 성찰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명감은 對社會的인 시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현실에 대한 자각과 함께 새로움을 지향하는 자유의 실체를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 자유의 문제로 연결되며, 이런 정치적 자유는 사회 참여로 이어지고 현실 인식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게 된다. 다음에 제시되는 작품은 벽에 걸린 사진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고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이다.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밑씻개로 하자
그 지긋지긋한 놈의 사진을 떼어서
조용히 개굴창에 넣고
씩어진 어제와 결별하자
그놈의 동상이 선 곳에는
民主主義의 첫 기둥을 세우고
쓰러진 성스러운 學生들의 雄壯한

29) 강만길, 『韓國現代史』, 창작과 비평사, 1985. p. 183.

30) 김수명 편, 앞의 책, p. 86.

紀念塔을 세우자

아아 어서어서 썩어빠진 어제와 결별하자

-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셋개 하자」 1연

이 시는 金洙暎이 관공서에 붙여진 대통령의 사진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는 예이다. 여기서 그는 4·19 혁명을 바라보는 감격과 환희를 생각나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4·19 직후 지식인, 학생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놀라운 힘에 감격했고 그 힘에 바탕을 둔 '새 날에 대한 희망'에 들떠 있었다. 이러한 감정은 金洙暎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에게도 4·19는 위대한 사랑의 승리였으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이었다. 그러한 인식을 金洙暎은 시라는 그릇에 담는다. 다음에 제시되는 시는 그러한 인식을 통한, 사회 참여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시를 쓰는 마음으로

꽃을 꺾는 마음으로

자는 아이의 고운 숨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죽은 옛 戀人을 찾는 마음으로

잊어버린 길을 다시 찾은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찾은 革命을 마지막까지 이룩하자

- 「祈禱」 1연

이 시에는 자연을 그 대상으로 인식하여 '우리가 찾은 혁명을 마지막까지 이룩하자'는 작가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 4·19는 민중의 힘으로 권력에 대항하여 민권을 지키고 자유를 찾은 민족 역사상 최초의 경험이었다. 하지만 4·19는 성공한 혁명이면서 실패한 혁명이었다. 즉,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 독재 정치를 무너뜨렸지만 그 뒤를 이은 정치는 그리 쉽게 질서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4·19 주체 세력들은 혁명 후의 뒤처리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했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정치는 다시 혼란에 빠져 버린다. 이러한 무지와 무관심은 金洙暎으로 하여금 혁명 후 사회 참여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여기서 '시, 꽃, 자는 아이, 죽은 옛 戀人, 길'은 金洙暎이 살고 있는 현실에 나타나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들이다. 金洙暎은 이런 현

실의 모습 그대로를 서정적으로 의식하면서 혁명 역시 자연스럽게 마지막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을 대상으로 한 사회 참여의 현실 인식은 다음 시에서도 계속된다.

푸른 하늘을 制壓하는
노고지리가 自由로왔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詩人의 말은 修正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飛翔하여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自由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있는가를
革命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革命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 「푸른 하늘을」 전문

이 시는 노고지리를 통한 사회 의식적(社會意識的) 주제를 담고 있다. 전통적 서정성에 얽매이는 것을 거부하고 사회 비판과,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전면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³¹⁾ 이 시가 씌어진 시점에서 볼 때, 당대 지식인과 대중에게 가장 목말랐던 것은 자유였다. 오랜 역사의 질곡, 말하자면 일제의 탄압, 그 후 이념의 갈등, 그것이 빚어 낸 동족 상잔의 비극, 이어진 독재 정치에서 우리 민족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일은 자유의 구속이었다. 자유는 인간다움을 담보하는 조건이다.

시적 자아의 자유관은 처절한 투쟁을 전제로 한 것이다. 1연에 보이는 자유의 피상적 의미는 낭만성에 근거한 것이다. 노고지리의 노래를 낭만으로 치부하는 것을

31) 송승환, 「한국 현대시 제대로 읽기」, 우리문화사, 1998. p. 109.

화자는 부정하고 있다. 시인이 인식하는 자유의 참된 의미는 2연에서 제시되는데, 그것은 투쟁성이다. 자유의 도래는 필연적으로 투쟁의 과정을 겪게 마련이고, 이 투쟁의 과정에서는 희생이 따르는 것이 인간사(人間史)의 철칙이다.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다는 구절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처절한 항거와 쟁취의 행동성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비장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 결의는 물론 자신의 영달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희생은 대중을 향한 지성적 판단에서 이루어지며, 단호한 결의를 내면화하는 일이야말로 고독한 결의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혁명이 고독하다는 논리가 그래서 성립된다. 그런데 그 고독한 결단은 자유의 구현을 위한 외면적 실상만은 아니다. 혁명은 고독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인식 태도야말로 시적 자아의 내면 풍경을 여실히 보여 준다. 그것은 치열한 자유의 쟁취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그 태도는 지성인의 책무이면서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당위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시는 사회 참여를 통하여 현실을 인식할 때, 그 인식의 대가는 바로 피이고 피의 대가는 자유임을 말하고 있다. 다음 시는 서적을 통해 자유와 혁명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이다.

既成六法全書를 기준으로 하고
 혁명을 바라는 자는 바보다
 혁명이란
 方法부터가 革命的이어야 할 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개수작이나
 불쌍한 백성들아
 불쌍한 것은 그대들 뿐이다
 천국이 온다고 바라고 있는 그대들 뿐이다
 최소한도로
 自由黨이 감행한 정도의 不法을
 革命政府가 舊六法全書를 떠나서
 合法的으로 불법을 해도 될까 말까한
 革命을-
 불쌍한 것은 이래저래 그대들 뿐이다
 그놈들이 배불리 먹고 있을 때도
 고생한 것은 그대들이고

그놈들이 망하고 난 후에도 진짜 굶고 있는 것은
그대들인데
불쌍한 그대들은 天國이 온다고 바라고 있다

- 「六法全書와 革命」 1연

이 시는 육법전서를 매개로 욕설과 비속어를 구사하는 격렬한 분노의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혁명 이후 보수 세력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자유당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국회를 해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을 시도했고, 혁명을 통해 이룩된 혁신 세력들은 자신들의 존립 기반을 찾고, 또 혁명 과업의 완수를 위해서라도 국회 해산을 주장하며 강력히 투쟁해야 했지만 총선을 그대로 받아들여 참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시인은 '불쌍한 그대들은 천국이 온다고 바라고 있다'는 냉소적 어조를 통해 4·19 혁명 이후 '잘사는 천국'이 온다고 믿고 있었던, 국민들과 정권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면서 부정적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金洙暎의 현실 인식이 사진이나 서적 등의 사물이나 노고지리 등 자연물인 매개물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바탕을 이루어 사회 참여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사회 참여를 통한 현실 인식의 작품에는 <하……그림자가 없다>, <晚時之嘆은 있지만>, <나는 아리조나 카우보이야>, <가다오 나가다오>, <그 방을 생각하며> 등이 있다.

2. 생활 체험을 통한 현실 인식

생활 체험을 통한 현실 인식은 삶 속에서 느끼게 되는 시인의 생각을 시로 표현한 것들에서 나타난다. 金洙暎의 경우, 시는 곧 생활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 그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활의 역경을 시에 용해시켰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 생활의 역경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시적 체험은 모두 현실의 체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그의 체험은 모두 그의 시에 재생된 것이고 그 체험의 바탕에는 현실 인식의 한 유형이 놓여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시들은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 인식의 유형의 예이다.

倒立한 나의 아버지의
얼굴과 나여

나는 한번도 이(風)를
보지 못한 사람이다

어두운 옷 속에서만
이(風)는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울린다

나는 한번도 아버지의
수염을 바로는 보지
못하였다

新聞을 펴라

이(風)가 걸어나온다
行列처럼
어제의 물처럼
걸어나온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이(風)」 전문

이 시에서 시인은 이(風)를 통하여 아버지의 모습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아버지를 제대로 쳐다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다. '아버지의 수염'이 상징하는,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권위 의식에 자아의 진실은 압도당한다. 화자는 삶을 지배하는 현실과 세상의 허위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없다. 또한 이(風)는 육체에 해를 입히고 괴로움을 주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이는 시인의 내면에 괴로움을 주는 번민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번민 탓에 시인은 아버지의 수염을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아버지의 수염은 시인 정신의 실체이며, 현실을 인식한 결과이다. 다음에 예시되는 작품에서는 헬리콥터라는 사물을 토대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사람이란 사람이 苦惱하고 있는
 어두운 大地를 차고 離陸하는 것이
 이다지도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것은
 愚昧한 나라의 어린 詩人들이었다
 헬리콥터가 風船보다 가벼웁게 上昇하는 것을 보고
 놀랄 수 있는 사람은 설움을 아는 사람이지만
 또한 이것을 보고 놀라지 않는 것도 설움을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들은 너무나 오래동안 자기의 말을 잊고
 남의 말을 하여 왔으며
 그것도 간신히 더듬는 목소리밖에는 못해 왔기 때문이다.
 설움이 설움을 먹던 時節이 있었다.
 이러한 젊은 時節보다도 더 젊은 것이
 헬리콥터의 永遠한 생리이다.

- 「헬리콥터」 1연

이 시는 헬리콥터라는 사물에 시인의 시적 상상력과 역사적 사실³²⁾이 결부되어, 시인의, 자유에 대한 소외감이 투사된³³⁾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헬리콥터의 비상’은 새의 비상을 상기시켜 준다. 즉 헬리콥터는 시인이 꿈꾸는 무제한의 시간 위를 안개처럼 가볍게 날아가는 ‘자유 정신’의 아름다운 원형이다. 헬리콥터가 풍선보다도 가볍게 상승하는 것을 보고 시인은 ‘자유 정신’의 비상을 꿈꾼다. 그러나, 현실 세계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고 있는 시인에게 그러한 비상은 어려운 일이다. ‘자유 정신의 아름다운 원형’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착륙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의 말을 잊고’ 관습적이고 타율적인 삶에 얽혀 ‘오랫동안 남의 말만’ 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인은 헬리콥터의 비상을 보며 비애를 느낀다. 시인의 아름다운 비상을 억제하는 장애는 바로 현실, 특히 일상인으로서의 삶이다. 金洙暎에게 있어서 생활은 안정감 속의 휴식을, 그리고 그 명예가 주는 무게에 고통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그는 삶 속에서 헬리콥터의 비상을 보면서 현실을 인식한다. 다음 시는 우리 일상적 모습들에서 이루어지는 현실 인식의 예이다.

32) 이것은 일제 강점기와 광복, 6·25전란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의 혼란과 가치의 전도 등을 의미한다.

33) 김정훈, 『金洙暎 시 연구-주체 의식을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6, p. 12.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王宮 대신에 土宮의 음탕 대신에
五卜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령탕집 돼지같은 주인넌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 <중 략> ……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絶頂위에는 서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二卜원 때문에 卜원 때문에 一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나 一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나 적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나 적으나
정말 얼마큼 적으나……

- 「어느날 古宮을 나오면서」 1 : 5 · 6 · 7연

이 시에서는 땅 주인, 구청직원, 동회직원 등으로 상징되는 강자와 설령탕집 주인, 이발쟁이, 야경꾼 등으로 상징되는 약자가 대립한다. 시인은 왕궁으로 상징되는 권력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처한 현실을 인식한다.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음탕한 왕궁을 향해 월남파병에 대해 욕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단지 설령탕집 주인에게 고기가 나쁘게 나왔다면 욕하는 일과 땅주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발쟁이를 나무라는 일, 그리고 구청직원, 동회직원이 아니라 야경꾼에게 단돈 일원을 가지고 큰소리칠 수 있는 일뿐이다. 어느 날 고궁을 지나면서 그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다. 그가 인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생활은 자연 속에서 모래보다도, 바람보다도, 먼지보다도 작은 자신의 생활, 60년대 중반의 무기력한 지식인의 생활이다. 그것은 바로 소시민적 삶이며, 서러움의 삶이다. 다음에 예시되는 시 역시 생활 속에서 일

어나는 소시민적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

나는 이 우중충한 막걸리 탁상 위에서
경험과 歷史를 너한테 배운다.
무식한 것이 그것들이니까-
너에게서 취하는 全身의 營養
끓었던 술을 다시 마시면서 사랑의 復習을 하는 셈인가.
똥똥해진 몸집하고 푸르스름해진 눈자위가 아무리 보아도 설위 보인다.
九八 만에 만난 滿洲의 여자
잊어버렸던 여자가 여기 있구나

- 「滿洲의 여자」 2연

이 시에서 시인은 술집 작부를 통해서 과거의 상황을 떠올린다. 그런데 과거의 여자를 만난 곳은 술을 마시는 자리이다. 술이란 사람의 감각 기관을 혼란하게 하여 정상적인 의식 활동을 방해하지만 과거의 기억을 끌어올려 왕성한 표현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술집 작부를 통한 만주에서의 기억, 그리고 그 여자를 보면서 시인은 자신의 현실을 인식한다.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만주 여자와 만주의 생활 그 속에는 삶에 시들어 가는 시인 자신과 시인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인식은 바로 설움의식이다.

이상의 시들을 통하여 金洙暎 시에 나타나는 현실인식의 유형 중 생활체험을 통한 인식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金洙暎 시의 현실인식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공통점은 글쓰기의 초반부터 후반에 이르기까지 연결되는 의식의 흐름 속에 있다. 그것은 바로 '설움'이다. 즉 그는 설움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 놓여있는 자신을 그 대상으로 하여 시를 쓰고 있다. 따라서 생활체험을 통한 현실 인식의 유형에 해당하는 시들은 4·19혁명 전후에 쓰여진 시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金洙暎의 시에 나타나는 현실 인식의 유형은 대부분 생활체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현실 인식의 양상

1. 세계의 응시와 비극성

1) '바로 봄'의 의미

金洙暎의 초기 시에 나타나는 어휘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보다' 이다. '바로 보다'가 많이 나오는 것은 金洙暎의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에 기인한다.

金洙暎의 초기시가 삶에 대한 비극적 전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의 시에서 구사된 시어들, 즉 <廟廷의 노래>의 '울더라', '우는', <孔子의 生活難>의 '어려웁다', <아메리카 타임誌>의 '어리석었다', '울던', <이(風)>의 '울리다', <웃음>의 '서러운', '시들어갑니다', '어리석은', '恨歎', <토끼>의 '우는', <아버지의 寫眞>의 '悲慘', '詛呪', '조바심', '無理하는' 등에 의해 입증된다. 시적 정조를 좌우하는 지배적 언어인 이러한 시어들은 金洙暎이 현실을 그만큼 부정적 또는 비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삶의 현실에 대한 비극적인 전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를 차단한다. 그러므로 시인은 삶에 제기되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1920년대에 쓰여진 감상과 퇴폐와 허무의 시들은 그 예이다.³⁴⁾ 그런데 金洙暎은 현실에 대한 비극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거나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비극적 상황을 초월하기 위한 정신적 대응방식을 모색하였다. 현실을, 세상의 허위성을 바로 보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시들은 현실을 바로 보려는 시인의 의지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동무여 이제 나는 바로 보마
事物과 事物의 生理와

34) 김종윤, 「金洙暎 문학 연구」, 한샘출판사, 1994, p. 116.

事物과 數量과 限度와
事物의 愚昧와 事物의 明晰性을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 「孔子的 生活難」 4연

이 시는 詞華集 『새로운 都市와 市民들의 合唱』에 「明白한 노래」란 표제 하에 수록되어 있다. 이 시를 쓸 무렵 金洙暎은 이미 자신들이 놓여 있는 현실과 괴리된, 지적 포우즈의 시에 취해 있는 박인환류의 모더니즘의 허구성을 인식하고 그들을 불신하고 있었다.³⁵⁾

이 시에 나타난, 현실적 삶을 조건 지우는 일체의 사물을 바로 보겠다는 시인의 결의는 예술가의 양심과 세상의 허위를 망각하고 시적 장난만 일삼고 있는 그들을 불신하는 계기가 된다.³⁶⁾ 살아가는 자체를 어렵고 괴로운 일로 생각하는 金洙暎으로서의 세상의 허위에 기만당하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웠다. 따라서 그러한 세상의 허위에 기만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事物의 愚昧와 事物의 明晰性’을 바로 볼 수 있는 정신적 태도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시인은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라는 비장한 어조를 통해 사물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정신적 태도와 진실을 노래하는 것은 죽음에 비견할 만큼 시인의 양심이 절대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인식은 바로 철학적 의미의 자유이다. 철학적 의미의 자유란 관습적 사고 방식에 얽매임 없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곧, 그것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인식이다.

機會와 油滴 그리고 능금
올바로 精神을 가다듬으면서
나는 數없이 길을 걸어왔다
그리하여 疑結한 물이 떨어진다
바위를 문다
瓦斯의 정치가여

35) 김수명 편, 앞의 책, p. 228.

36) 김수명 편, 앞의 책, p. 227.

실제로 그는 그 두 작품이 ‘詞華集에 수록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粗製濫造한 히야까시 같은 작품’이라고 했다.

너는 活字처럼 고롭다
내가 옛날 아메리카로 돌아오던 길
뱃전에 머리 대고 울던 것은 女人을 위해서가 아니다

오늘 또 活字를 본다
限없이 긴 활자의 連續을 보고
瓦斯의 政治家들을 응시한다.

- 「아메리카 타임誌」 2 · 3 · 4연

이 시 역시 앞에서 제시된 태도가 잘 나타나고 있다. 세상의 허위에 속지 않으려고 ‘올바로 精神을 가다듬으면서’ 살아왔지만 세상은 자아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뱃전에 머리 대고 울던 것은 女人을 위해서가’ 아닌데, 세상은 그가 여인을 위해 운 것으로 본다. 세상의 허위와 자아의 진실이 대립·갈등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연에 나오는 ‘본다’, ‘보고’, ‘凝視한다’는 동사들은 세상의 허위성을 지켜보려는 그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活字’는 모든 사회적·문화적 현상을 전달하는 매체이며, ‘瓦斯의 政治家’는 세계적인 제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현실을 조정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음모들이 제대로 밝혀지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 그리하여 그러한 세상의 허위에 저항하여 싸우는 것은 바로 시인의 사명이기도 하다.

生後の 토끼가 살기 위하여서는
戰爭이나 혹은 나의 眞實性모양으로 서서 있어야 하였다
누가 서있는 게 아니라
토끼가 서서 있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캥가루의 族은 아니다
水牛나 生魚같이
翫得하지는 못하였다
그는 고개를 들고 서서 있어야 하였다

愚昧와 年齡이 언제 그에게
나타날는지 모르는 까닭에
暫時 그는 별과 또하나의 것을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하나의 것이란 우리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는 曲線같은 것일까

여기에서도 자신의 운명을 토끼의 비극적 운명에 비유하면서 시인의 사명을 다하려는 의지는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音程을 맞추어 우는 법도/ 躰得하지 못한’ 토끼는 바로 현실에 알맞은 음정으로 노래할 줄 모르는, 세상의 허위와 타협할 줄 모르는 시인 자신이다. ‘고개를 들고 서서’ 있는 자세는 바로 현실에 대한 저항적인 대결의 자세이다. 그러한 대결의 자세로 ‘蒙昧와 年齡’의 무기력 속에 함몰하기 전에 ‘별’과 ‘우리의 肉眼에는 보이지 않는 曲線’을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별’이 상징하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진실과 ‘肉眼에는 보이지 않는 曲線’이 상징하는 세상의 허위를 동시에 지켜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아의 진실과 세상의 허위성을 바로 보려는 시인의 노력은 삶의 현실적 조건들에 의해 장애를 일으킴으로써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다음에 제시되는 시들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倒立한 나의 아버지의
얼굴과 나여

나는 한번도 이(風)를
보지 못한 사람이다

어두운 옷 속에서만
이(風)는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울린다

나는 한번도 아버지의
수염을 바로는 보지
못하였다

- 「이(風)」 1·2·3·4연

이 시에서 ‘어두운 옷 속에서만/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울린다’에 나타나고 있는 이(風)는, 사물을 바로 보려는 金洙暎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체를 드

러내지 않는 세상의 허위성을 의미한다. 아버지와의 관계³⁷⁾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기대와 희망 사이에서 번민하고 갈등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의 수염’이 상징하는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에 자아의 진실이 압도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바로 볼 수가 없다. 즉 삶을 지배하는 현실적 조건과 세상의 허위성 때문에 바로 볼 수 없다. 다음에 제시되는 시 역시 현실적 조건으로 인한 삶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주변없는 사람이 만져서는 아니될 冊
만지면은 죽어버릴듯 말듯 되는 冊
가리포루니아라는 곳에서 온 것만은
確實하지만 누가 지은 것인줄도 모르는
第二次大戰 以後의
긴긴 歷史를 갖춘 것같은
이 嚴然한 冊이
지금 바람 속에 휘날리고 있다
어린 동생들과의 雜談도 마치고
오늘도 어제와 같이 괴로운 잠을
이루울 準備를 해야 할 이 時間에
괴로움도 모르고
나는 이 책을 멀리 보고 있다
그저 멀리 보고 있는 듯한 것이 妥當한 것이므로
나는 괴롭다

- 「가까이 할 수 없는 書籍」 4~18행

시인은 ‘歷史를 갖춘’, ‘嚴然한 冊’을 ‘주변없는 사람이 만져서는 아니 될’, ‘만지면 죽어버릴 듯 말듯 되는’ 禁制의 현실적 조건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러나 시인은 ‘괴로움도 모르고/ 나는 이 책을 멀리 보고 있다’에서 보듯이 비극적 현실인식 속에서도 자아의 진실을 밝히려는 지속적인 의지를 드러낸다. 다음에 제시되는 시 역시 이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37) 전기적인 자료를 통해 볼 때 선린 상업을 졸업한 이후 부친이 임종할 때까지 갈등을 일으킬 만한 뚜렷한 사건은 없었다. 金洙暎이 워낙 집안 일에 무관심하기도 했지만, 동경 유학, 만주 이주 등으로 함께 부친과 기거하는 기간이 적었기 때문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寫眞에는
 眼鏡이 걸려있고
 내가 뿔뿔이 내다볼 수 없는 現實처럼
 그의 눈은 깊이 파지어서
 그래도 그것은
 돌아가신 그날의 푸른 눈은 아니요
 나의 飢餓처럼 그는 서서 나를 보고
 나의 모오든 사람을 또한
 나의 妻를 避하여
 그의 얼굴을 숨어 보는 것이요

- 「아버지의 사진」 2연

金洙暎은 ‘悲慘’과 ‘飢餓’가 의미하듯이 자신의 무기력한 생활력 때문에 ‘現實’을 ‘뿔뿔이 내다 볼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적 조건이나 세상의 허위성에 의해 대상을 바로 볼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바로 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이다. 따라서 金洙暎은 ‘그의 얼굴을 숨어 보는 것이요’ 에서 보듯이 ‘숨어서라도 보려고’ 노력한다. 이는 현실과의 적절한 타협이라기보다는 자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계속하려는 지속적인 의지의 표명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곧 자신의 삶에 가해지는 현실의 중압이 아무리 크더라도 결연히 대처해 나가려는 저항적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비록 적극적인 행동성이 결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金洙暎의 초기시의 내용적 특성은 현실에 대한 비극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세상을 바로 봄으로써 그 허위성을 발견, 자아의 진실을 구현하는 노력을 계속하려는 저항적 의지의 지속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지의 지속성이 후기시로 가면서 자신의 비극적 현실 인식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2) ‘전쟁’과 설움

195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쓰여진 金洙暎의 시에서 ‘설움’은 중요한 모티프(motif)를 이룬다. 그의 설움의 연원은 대개 세 가지로 논의된다. 즉, 첫째는 시인의 과거, 6·25를 전후한 우리의 역사와 겹쳐져 있는 과거이고, 둘째는 생활 현실이며, 셋째

는 위의 두 가지와 좀 다른 것으로서 설움의 의미라 할 수 있는, 살아있다는 증거로서의 설움이다.³⁸⁾

여기서는 이중에서도 첫째 설움의 연원인 시인의 과거 즉, 6·25를 전후한 우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시인의 현실 인식의 양상이 어떻게 시로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해방 이후, 6·25 이전의 시기는 좌·우 대립의 시기였다. 문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양상은 다르지 않았다.

조선문학가동맹의 조직, 세력이 강화되자 이들의 정치적 입장을 반대했던 민족 진영의 문인들은 중앙문화협회를 중심으로 전조선문필가협회를 창설하고, 문학인으로서의 민주주의 국가건설에 공헌하고 민족문화를 발전시켜 나아가자는 강령을 채택한다. 이 단체에 가담하고 있던 조연현, 김동리, 서정주, 조지훈, 곽종원 등이 별도로 조선청년문학가협회를 조직하여 활발한 문학활동을 전개하게 되자, 조선문학가동맹과 대립관계에 놓이게 된다. 조선청년문학가협회의 활동은 문학의 독자성과 그 자율성에 대한 신념을 지켜 나가기 위한 문학적 실천작업으로 일관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자체가 경향성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신문, 잡지가 대부분 조선문학가동맹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⁹⁾

이러한 좌·우 대립의 사회적 상황에서 6·25가 발발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은 더욱 더 비참했다. 金洙暎의 6·25 체험은 1950년대에 쓰여진 대부분의 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25를 바탕으로 한 현실의 체험은 설움 의식으로 표출되어 나타난다. 다음에 제시되는 시는 金洙暎의 6·25의 체험을 드러내는 예이다.

나는 원래가 약게 살 줄 모르는 사람이다.
眞實을 찾기 위하여 眞實을 잊어버려야 하는
來日의 逆說모양으로
나는 自由를 찾아서 捕虜收容所에 온 것이고
自由를 찾기 위하여 有刺鐵網을 脫出하려는 어리석은 動物이 되고 말
았다.
「예보세요 내 가슴을 헤치고 보세요. 여기 짹짹 숨기고 있던 格

38) 정현중, 「시와 행동, 추억과 역사」 『金洙暎의 문학』, 민음사, 1983, p. 228.

39)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1945-1990)」, 민음사, 1997, p. 35.

印보다 더 크고 검은

呼訴가 있지요.

길을 잃어버린 呼訴예요.」

「自由가 항상 싸늘한 것이라면 나는 당신과 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살아있는 捕虜의 哀願이 아니라,
이미 大韓民國의 하늘을 가슴으로 등으로 쓸고 나가는
저 조그만 飛行機같이 煙氣도 餘韻도 없이 살아진 몇몇 捕虜들의
英靈이

너무나 알기 쉬운 말로 아무도 듣지 못하게 당신의 뺨에다 대고
비로소 始作하는 꺾속이야기지요.」

「그것은 본 사람만이 아는 일이지요.

누가 巨濟島 第六十一收容所에서 檀紀四二八四年三月十六日 午前午時
에 바로 鐵網 하나 둘 셋 네 겹을 隔하고 불 일어나듯이 솟아는 第六
十二赤色收容所로 돌을 던지고 돌을 받으며 뛰어 들어갔는가.」

……(중략)……

내가 六·二五후에 价川野營訓練所에서 받은 말할수 없는 虐待를 생각
한다.

北院訓練所를 脫出하여 順天邑內까지도 가지 못하고

惡鬼의 눈동자보다도 더 어둡고 무서운 밤에 中西面內務省軍隊에게
逮捕된 일을 생각한다.

그리하여 달아나오던 날 새벽에 파묻었던 銃과 러시아軍服을 사흘을
걸려서 찾아내고 겨우 銃殺을 免하던 꿈같은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平壤을 넘어서 南으로 오다가 捕虜가 되었지만

내가 만일 捕虜가 아니되고 그대로 거기서 죽어버렸어도

아마 나의 靈魂은 부지런히 일어나서 甦生하고 돌아오는

大韓民國 傷病捕虜와 UN傷病捕虜들에게 한마디 말을 하였을 것이다.

「수고하였습니다.」

- 「祖國에 돌아오신 傷病捕虜 同志들에게」 2·3·8연

이 시는 金洙暎이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씌어졌다. 金洙暎은 1950년 4월 결
혼한 후, 정신적으로 안정되기는 했으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
고 있을 무렵, 6·25를 맞는다. 피난을 가지 않았던 그는 '문학가 동맹'에 나가게 되
는데, 그 곳에는 백철, 정지용, 노천명, 박영준 등과 월북했던 이태준, 임화, 김남천,

오장환 등이 내려와 있었다. 당시 金洙暎의 내면의식은 전쟁이 민족사에 끼치는 영향, 자신의 시와의 관계, 좌도 우도 아닌 제 3당인으로서 자신의 처신 문제 등에 있어서 극도로 혼란한 상태였다.⁴⁰⁾

金洙暎은 그 해 8월 의용군에 징집되어 북으로 끌려갔다가 유엔군의 평양 탈환 시에 탈출을 시도, 남하에 성공했으나 서울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첩자로 간주되어 모진 고문을 받은 후 결국 거제도 포로 수용소와 부산 수용소 병원으로 차례로 이송되었다가 통역일을 봐주던 그 곳 외과원장의 호의로 1952년 12월경에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 시는 이러한 정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시에서 나타나는 주된 모티프는 자유이다. 金洙暎이 북에서 탈출하여 남하한 것, 그리고 반공포로 수용소에서 적색포로수용소로 들어가 돌을 던진 것은 모두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래서 그는 부상병이 되어 돌아오는 국군 및 UN군 포로들에게 시의 형식을 빌려 그가 원했던 자유의 의미를 전달한다. 한편 이 시에서 金洙暎은 ‘北院訓練所를 脫出하여 順天邑內까지도 가지 못하고 惡鬼의 눈동자보다도 더 어둡고 무서운 밤에 中西面內務省軍隊에게 逮捕’ 된 일을 생각한다. 그의 현실인식은 ‘새벽에 파묻었던 銃과 러시아軍服을 사흘을 걸려서 찾아내고 겨우 銃殺을 免하던 꿈같은 일’을 생각한다는 구절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바로 전쟁에 대한 무서움 또는 전쟁의 공포에 관한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뒤에 나오는 시에서 ‘설움’이란 주제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 다음 시는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팽이가 돈다

어린아이이고 어른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로우
물끄러미 보고 있기를 좋아하는 나의 너무 큰 눈 앞에서
아이가 팽이를 돌린다
살림을 사는 아이들도 아름다움듯이
노는 아이도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손님으로 온 나는 이집 주인과의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또한번 팽이를 돌려주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다
都會안에서 쫓겨다니는 듯이 사는

40) 최하림 편저, 『한국현대시인연구-9 金洙暎』, 문학세계사, 1995. p. 90.

나의 일이며
 어느 小說보다도 신기로운 나의 生活이며
 모두 다 내던지고
 점잖이 앉은 나의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정말 속임없는 눈으로
 지금 팽이가 도는 것을 본다
 그러면 팽이가 까맣게 변하여 서서 있는 것이다
 누구 집을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餘裕가 있고
 바쁘지도 않으니
 마치 別世界같이 보인다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팽이 밑바닥에 끈을 돌려 매이니 이상하고
 손가락 사이에 끈을 한끝 잡고 방바닥에 내어던지니
 소리없이 회색빛으로 도는 것이
 오래 보지 못한 달나라의 장난같다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돌면서 나를 올린다
 제트機 壁齒밑의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 앞에서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며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있는 이 밤에
 나는 한사코 放心조차 하여서는 아니될 터인데
 팽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고 있다
 비행기 프로펠러보다는 팽이가 記憶이 멀고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이 더 많은 나의 착한 마음이기에
 팽이는 지금 數千年前의 聖人과같이
 내 앞에서 돈다
 생각하면 서러운 것인데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된다는 뜻이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 「달나라의 장난」 전문

金洙暎의 부인인 김현경에 의하면 이 시가 쓰여진 시기는 金洙暎이 부산에서 직

장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던 때였다. 그때 그녀는 “익살을 부릴 양으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앙꼬빵 세 개를 담은 접시를 그려 보냈는데,”⁴¹⁾그 그림을 본 金洙暎은 웃다가 울었다는 글과 함께 「달나라의 장난」을 적어 보냈다고 한다. 당시는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해진 상태로, 모든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는 도둑질까지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다. 그런 시기에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아들과 처가 있다는 것은 커다란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부정한 것을 용납할 수 없고, 예술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졌던 金洙暎에게 생계를 위해 현실과 타협해야 한다는 것은 참기 힘든 일이었다. 「달나라의 장난」 전편에는 이러한 갈등이 빚어내는 허탈함이 드러나 있다. 전쟁으로 폐허화된 거리를 ‘쫓겨 다니는 듯이’, ‘소설보다도 신기롭게’ 살아가면서도 ‘속임없는 눈으로’, ‘나이가 준 나의 무게’로 세상을 바로 보며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에게는 ‘누구의 집을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는’ ‘별세계’로 인식된다. 이러한 소외감이 의식의 균열을 일으키며 ‘나를 울린다’. 여기서 ‘소리없이 회색 빛으로 도는’ ‘팽이’는 시인의 의식에 포착된 어두운 현실이다. 시인은 자신이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명징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은 ‘나를 울린다’. 즉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運命과 使命’을 자각하고 있는 ‘나’를, 나의 그러한 의지를, 현실은 ‘비웃듯이 돌고 있는’ 것이다. 울리는 현실과 울지 않으려는 자아 사이의 긴장과 대립의 현실과 6·25로 인해 생존조차 어려워진 시대상황은 바로 시인의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설움’의 최대 근거이다. 이 시절에 쓰여진 시에 ‘설움’이라는 단어가 빈번히 등장하는 것⁴²⁾은 그 근거가 쉽게 소멸되지 않고 시인을 오랫동안 괴롭혀왔기 때문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시 역시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비가 그친 후 어느날-

나의 방안에 설움이 충만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중략)……

설움을 逆流하는 야릇한 것만을 구태여 찾아서 해매는 것은

41) 최하림 편저, 앞의 책, p. 125.

42) 1953~1954년에 쓰여진 15편의 시작품에 설움과 관련된 단어(서러운, 설위한, 설움, 구슬픈, 비참한, 서글프게, 애처러운 등)는 18회나 등장하고 있다.

우둔한 일인줄 알면서
그것이 나의 생활이며 생명이며 정신이며 시대이며 밑바닥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아 그러나 지금 이 방안에는
오직 시간만이 있지 않으나
……(중 략)……

가만히 앉아있어도 자꾸 빠르하여만가는 목을 돌려
시간과 함께 비스듬히 내려다보는 것
그것은 혹시 한자루의 부채
-그러나 그것은 보일락말락 나의 視野에서
멀어져가는 것-
하나의 가냘픈 物體에 도저히 고정 될 수 없는
나의 눈이며 나의 정신이며
……(중 략)……
마지막 설움마저 보낸 뒤
빈 방안에 나는 홀로이 머무러앉아
어떠한 내용의 책을 열어보려 하는가
- 「방안에서 익어가는 설움」 전문

그의 설움은 슬픔과 뉘앙스를 좀 달리한다. 슬픔이 형이상학적이고 명상적이며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것인 데에 비해 설움은 한결 현실적이고 우리의 「恨」에 가까운 특수한 것이다. 그가 유달리 설움을 많이 느꼈다는 것은 그의 성품이 착하다는 데에서 연유한다. 착하다는 것은 곧 상처를 입을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상처나 시대의 상처를 자신의 상처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뜻한다. 이 시에서도 金洙暎은 방안에 충만 되어 있는 설움이 '생활이며 생명이며 정신이며 시대이며 밑바닥'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나 이 때의 설움은 '유유히 자기의 시간을 찾아가버린, 빈 방안에 홀로 앉아 타인들로부터 고립'되었음을 확인한 후의 설움이다.

문학은 역사적 상황 속에 간헐 민족의 고통과 환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각기관과 같은 것인 동시에 역사를 투시하는 가장 치열한 정신의 작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정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엄청난 비극 앞에서 동시대의 작가들은 전쟁이란 인간 존재의 극한상황을 미학적으로 수용할 응전력을 갖추지 못한 채 개

인의 생존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천성적으로 자기 자신의 일 외에는 무관심한 金洙暎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⁴³⁾ 한마디로 金洙暎은 ‘설움’을 통하여 현실을 인식하였고 그 설움을 시로 형상화하고 있다.

2. 현실의 확인과 자유의지

4·19는 현실의 부정에 대한 항거로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질 어떠한 부정에도 항거하는, 모든 비이성적 행위에 대한 반항 정신이고 어떠한 일정한 목표에 의해서 행해지고 그것이 이룩된 다음에 종료되는 성질이 아니라 영원한 이상을 향한 행위이며 그것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미숙과 결함을 보충, 교정하면서 즐기치게 발전하여 가는 意識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4·19를 미완의 혁명이라 부를 때는 적어도 이러한 어느 한 부분이 사상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본질의 변질은 필연적으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외적인 표현의 자유를 누렸던 한국의 시인들에게 커다란 회의와 무력감을 던져주었다. 여기서는 이런 상황에서 金洙暎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였고 그 인식을 어떻게 표출하고 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 현실참여 지향과 자유의지

4·19 직후의 金洙暎의 시를 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표현의 직접성이다. 4·19 이후 그가 쓴 최초의 시인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밑씻개로 하자>는 이전의 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직선적이고 속된 용어들과 함께 金洙暎의 감정상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물론 한 편의 시를 내세워 4·19라는 변수를 들먹이며 그의 시적 변모를 논할 수는 없지만 표현상의 변화를 놓고 볼 때 그가 4·19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틀림없다.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밑씻개로 하자

43) 김종윤, 앞의 책, p. 42.

그 지긋지긋한 놈의 사진을 떼어서
 조용히 개울창에 넣고
 썩어진 어제와 결별하자
 그놈의 동상이 선 곳에는
 民主主義의 첫 기둥을 세우고
 쓰러진 성스러운 學生들의 雄壯한
 紀念塔을 세우자
 아아 어서어서 썩어빠진 어제와 결별하자

-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싯개로 하자」 1연

이 시는 4·19 직후, 즉 1960년 4월 26일 발표된 시로서 몰락한 권력을 거침없이 비판하고 4·19라는 엄청난 현실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거나 상투적인 찬미를 지양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에는 ‘두려움 없이 그놈의 사진을 떼어’ 버리자는 독재자에 대한 증오와, ‘민주주의와 자유는 이제 상식’으로 되었으며 ‘붙들어갈 사람은 없다’는, 혁명으로 획득한 자유에 대한 감격이 나타나 있다.

우리들의 敵은 늪름하지 않다
 우리들의 敵은 카크 다글라스나 리차드 워드마크 모양으로 사나웁지도 않다.
 그들은 조금도 사나운 惡漢이 아니다
 그들은 善良하기까지도 하다
 그들은 民主主義者를 假裝하고
 자기들이 良民이라고도 하고
 자기들이 選良이라고도 하고
 자기들이 會社員이라고도 하고
 電車를 타고 自動車를 타고
 料理집엘 들어가고
 술을 마시고 웃고 雜談하고
 同情하고 眞摯한 얼굴을 하고
 바쁘다고 서두르면서 일도 하고
 原稿도 쓰고 치부도 하고
 시골에도 있고 海邊가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散步도 하고
 映畫館에도 가고
 愛嬌도 있다

그들은 말하자면 우리의 곁에 있다

우리들의 戰線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들의 싸움을 이다지도 어려운 것으로 만든다
우리들의 戰線은 당케르크도 놀만디도 延禧高地도 아니다
우리들의 戰線은 地圖冊 속에는 없다
그것은 우리들의 집안 안인 경우도 있고
우리들의 戰場인 경우도 있고
우리들의 洞里인 경우도 있지만……
보이지는 않는다
……(중략)……

우리들의 싸움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차있다
民主主義의 싸움이니가 싸우는 방법도 民主主義式으로 싸워야 한다
하늘에 그림자가 없듯이 民主主義의 싸움에도 그림자가 없다
하……그림자가 없다

- 「하……그림자가 없다」 1·2·4연

이 시에는 혁명을 예감하는 시인의 예지가 나타나 있다. 그는 지금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거대한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또는 비굴하게 굴복한 채 살아가고 있는 민중들에게 그러한 사고의 경화현상이나 의식의 마비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시어는 '우리'와 '적'과 '싸움'이다. 철저히 개인적 삶의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던 그의 시가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문제로 확산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나타나는 '敵'도 '그들'이라는 집합적 의미의 복수이다. 따라서 '싸움'도 개체간이나 개체와 세계와의 싸움이 아닌 집단과 집단간의 싸움이다. 민중들과 그들을 억압하는 '그림자가 없는' 폭력집단간의 싸움인 것이다. 이 시기에 씌어진 대부분의 시가 정치적·사회적 성격을 띤 참여시로 변모하게 된 것은 이러한 싸움에 대한 현실 인식에 기인한다.

다음은 혁명의 실패를 통해 현실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의 예이다.

革命은 안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버렸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없이 메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四肢일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革命은 안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렸다
나는 인제 녹슬은 펜과 뼈와 狂氣-
失望의 가벼움을 財産으로 삼을 줄 안다
이 가벼움 혹시나 歷史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財産으로 삼았다

혁명은 안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意志의 殘滓 대신에
다시 쓰디쓴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방을 잃고 落書를 잃고 期待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없이 풍성하다

- 「그 방을 생각하며」 전문

이 시에는 혁명에 대한 좌절감이 쓰라린 회한의 어조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혁명은 안되고 방만 바꾸어 버렸다’는 자각은 ‘방만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어 버린’ 자탄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방을 바꿨다고 해서 그 방의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니며, ‘싸우라 싸우라’ ‘일하라 일하라’ 는 말이 헛소리가 되는 것도 아니다. 4·19가 남긴 환상과 의지는 아직도 金洙暎의 마음에 남아 울리고 있다. 즉 ‘방을 바꿨다’ 고 해서 그 방의 의미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하여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金洙暎에게는 자유 의지가 남아 있기에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마저 잃어버렸어도’ 그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고 무엇인지 모르게 기쁜 것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시는 역시 金洙暎의 의식의 변화를 명료히 보여준다.

罪人들의 말이
 배고픈 것보다도
 잠 못 자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해서
 그래 그러나
 배고픈 사람이
 하도 많아 그러나
 詩같은 것
 詩같은 것
 안 쓰려고 그러나
 더구나
 <四·一九> 詩 같은 것
 안쓰려고 그러나

- 「四·一九 詩」1연

혁명 일 년 뒤에 쓰여진 이 시기의 마지막 작품이 되는 이 시는 혁명에 대한 시인의 의식의 변화를 명료히 보여준다. 그의 시로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짧은 시행으로 이루어진 이 시는 혁명에 대한 치열한 정신이 매우 이완되어 있다. 그러나 ‘배고픈 것’, ‘잠 못 자는 것’과 같은 현실적 삶의 중압에 의한 의식의 마비현상과 ‘四·一九 詩’를 쓰려고 하는 시인으로서의 양심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반어적인 어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반어적인 어조는 시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혁명은 도처에 불시로 부단히 있는 것”⁴⁴⁾이라는 시인의 신념을 감지시킨다. 따라서 이전까지 단조로운 어조를 보이던 金洙暎의 시가 이 시기에 오면서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는 점은 현실을 인식하는 그의 태도가 가변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金洙暎에게 있어서 현실은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기가막힌 일들의 전개’ 되는 곳이며, ‘우리 양심의 24시간이 온통 고문의 연속’으로 인식되는 곳이다. 그래서 그는 그 고통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유를 선택한다. 여기서의 자유는 현실상황에 대한 金洙暎의 인식을 말한다. 그는 자유를 시적, 정치적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것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에 대해 노래하며, 또한 인간의 구체적 삶을 제시하는 터전으로서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 관심을 기울인다. 즉 현실의 정치적 상황

44) 김수명 편, 앞의 책, p. 335.

이 폭력적이고 권력 지향적일 때, 자유는 그 권력 앞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金洙暎이 4·19를 전후하여 현실참여 지향의 시들을 창작하는 의도에는 이러한 자유의지의 발산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敵'의 의미

金洙暎은 외부 세계와 그의 자아와의 관계의 '단절'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받아들여야 할 것'과 '뚫고 나가야 할 것'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때 자신이 '뚫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는 '적'이라고 명명한다. 그의 시에서 '적'이라는 말은 4·19직전에 쓰여진 <하……그림자가 없다> 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적'은 단순히 의식이나 언어에 의해서 개념적으로, 또는 논리적인 재구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행위하는 인간의 체험에 의해서만 그 실체가 비로소 제대로 통찰되고,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생한 삶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행하고 긍정하려는 데서 '적'의 올바른 인식은 가능해진다 는 것이다.

더운 날
적이란 海綿같다
나의 良心과 毒氣를 빨아먹는
문어발같다
……<중략>……
순사와 땅주인에서부터 過速을 범하는 運轉手에까지
나의 敵은 아직도 늘비하지만
어제의 敵은 없고
더운날처럼 어제의 敵은 없고
더워진 날처럼 어제의 敵은 없고

-「敵」 1·5연

이 시에서 '적'은 '순사, 땅주인, 운전수' 등으로 제시되지만 그가 마주치는 적은 바로 "나의 양심과 독기를 빨아먹는" 존재이다. '적'은 시인의 곁에서 언제나 시인의

방심을 노리고 있다. 시인을 일상적 삶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의 “양심과 독기”는 이 거대하고도 모호한, 살아서 생동하며 수시로 변화하는 ‘적’과 아주 고통스럽고도 힘든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여기서 “나의 양심과 독기”는 ‘적’을 바로 보려는 현실의 인식이다.

金洙暎에 있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은 현실인식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그와 가족들과의 관계는 화해적이지 못하고 항상 대립적이다. 그들은 金洙暎이 지칭하는 적들과 동류항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존재가 아내다.

아픈 몸이

아프지 않을 때까지 가자

온갖 식구와 온갖 친구와

온갖 敵들과 함께

敵들의 敵들과 함께

무한한 연습과 함께



이 시에서는 조화로운 삶의 현실적 어려움과 이를 위해 노력하는 金洙暎의 치열한 정신이 잘 나타나고 있다. ‘식구’와 ‘친구’와 ‘적’은 동질적 대상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金洙暎이 상징하는 ‘적’은 실제적인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심리적 상태에서 배태되어 나오는 인식의 산물에 가깝다. ‘적’은 실제 존재하는 어떤 대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인간 개개인이 자신의 실존을 향해 나아갈 때 그의 자유와 생명을 위협하는 인간의 내적 심리 요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무거운 적’도 ‘가벼운 적’도 아닌 현실의 인식 속에서 나타나는 ‘제일 무겁고 무서운 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무슨 敵이든 敵을 갖고 있다

敵에는 가벼운 敵도 무거운 敵도 없다

지금의 敵이 제일 무거운 것 같고 무서울 것 같지만

이 敵이 없으면 또 다른 敵-來日

來日의 敵은 오늘의 敵보다 弱할지 몰라도
오늘의 敵도 來日의 敵처럼 생각하면 되고
오늘의 敵도 來日의 敵처럼 생각하면 되고
오늘의 敵도 來日의 敵처럼 생각하면 되고

오늘의 敵으로 來日의 敵을 쫓으면 되고
來日으로 오늘의 敵을 쫓을 수도 있다
이래서 우리들은 태평으로 지낸다

-「敵(·)」, 전문

이 시는 '우리는 무슨 적이든 적을 갖고 있다'로 시작하여 마지막행 '우리들은 태평으로 지낸다'로 끝맺는다. 즉 이 시는 적을 가지고 있어도 태평으로 지낼 수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1연에서는 모든 적을 동일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 새로운 것이 생기며, 비록 그 대상은 바뀔지라도 적 대감의 부피는 같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적'과 '내일의 적'은 동일시될 수 있다. 2연에서는 하나의 적으로 다른 적을 쫓을 수 있다고 말한다. '오늘의 적'과 '來日의 적'이 공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언제나 하나의 적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의 적'을 갖고 있는 동안 새로운 '내일의 적'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고 또 '오늘의 적'은 새로이 '내일의 적'이 생기기만 하면 자연히 없어진다. 그래서 적을 갖고 있지만 '태평으로 지낼' 수 있는 논리가 생긴다. 이처럼 모든 적이 동일시되고 쫓을 수도 있는 것은 적이 그 구체적인 실체를 상실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하고 사소한 것으로 대치되었음을 말해 준다.

제일 피곤할 때 敵에 대한다
바위의 아량이다
날이 흐릴 때 정신의 집중이 생긴다
神의 아량이다.
.....(중략).....
제일 피곤할 때 敵에 대한다
날이 흐릴 때면 너와 대한다
가장 가까운 敵에 대한다
가장 사랑하는 敵에 대한다

偶然한 싸움에 이겨보려고

- 「敵(一)」 1·7연

이 시에서 “제일 피곤할 때”와 “날이 흐릴 때”는 각기 개인과 사회에 ‘적’의 세력이 가장 왕성할 때이다. 이 ‘적’과 대면하는 시인은 자신과 사회에 대한 엄격하고도 객관적인 통찰을 보여준다. 이 통찰은 ‘정신의 집중’으로 나타난다. 이 ‘정신의 집중’에 의해 화자는 자신에게 닥친 ‘적’과의 ‘우연한 싸움’을 이기고 자신의 현실 인식에 도달한다.

이상을 토대로 金洙暎의 시에 등장하는 敵의 의미를 파악하면, 그것은 金洙暎 자신일 수도 있고, 자유를 억압하는 이 시대의 모든 것일 수도 있다. 즉, 역사의 파괴자, 정직한 사회를 방해하는 장애물, 정당화될 수 없는 일체의 사회·문화적 이상 등 여러 가지로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3. 일상성의 발견과 인간성 회복

金洙暎의 관심은 항상 생활과 현실 속에 집중된다. 이런 생활과 현실은 초기의 詩作에서처럼 그저 情態的으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참가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는 動態的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모습은 金洙暎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외부 세계에 대한 사정없는 객관적 분석과 관찰을 거쳐서, 자신의 내면 세계에 구현된 새로운 세계의 창조를 위한 보다 적극적 실천의 의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실은 金洙暎에게 있어서 더 이상 대립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시와 늘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랑의 장소로 인식된다. 즉, ‘단절’과 ‘설움’의 아니라, ‘조화’와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金洙暎의 일상적 삶속에서의 현실인식을 통한 조화와 사랑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곧 金洙暎 시의 현실인식 양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기도 하다.

1) 소시민적 삶의 태도와 극복

산업사회의 새로운 계층탄생에서 파생된 사회 구성원인 ‘소시민’이라는 용어는 현

대에 와서 자주 논의되어 왔다. 소시민의 사전적 개념은 서구의 봉건사회가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계층이다. 산업적 중산층에서 비롯되어, 현대에서의 사회적 실체는 구중산계급인 소기업주, 자영점포상인, 독립자영농민, 자유업자 등과 신중산계급인 인텔리 지식인, 관공리, 예술가 등을 소시민층으로 보기도 한다. 백낙청은 '시민문학론'⁴⁵⁾에서 소시민을 “엄연히 시민계급의 일원이면서도 시민의 제반 지배적 결정에는 참여 못하는 지배계급의 구성원이며, 자립자족적인 시민이라는 환상을 끝내 고집하는 현대사회의 수많은 시민들”로 정의하고 있다.

金洙暎의 시에서는 바로 이러한 소시민적 삶의 모습들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의 시에서 소시민적 삶의 모습들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이유로는 혁명의 좌절을 통한 현실인식에서 기인한다. 그는 좌절된 혁명 앞에서 '저항은 무용, 저항시는 더욱 무용'함을 인식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전향을 한 데 놀라면서', "5·16 이후의 나의 생활도 생활이다/ 복종의 미덕!/ 사상까지도 복종하라"(「전향기轉向記」) 등⁴⁶⁾의 회극적 제스처를 보인다. 이때 그는 소시민적 삶 속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가기 시작하며,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를 구속하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게 된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怪奇한 청년
 때로는 일본에서
 때로는 以北에서
 때로는 三浪津에서
 말하자면 세계의 도처에서 나타날 수 있는 千手千足獸
 美人, 詩人, 事務家, 농사꾼, 商人, 耶穌이기도 한
 나날이 새로워지는 괴기한 인물

- 「絶望」 1연

이 시에 등장하는 괴기한 청년은 바로 시인 자신을 의미한다. 金洙暎은 성장기에 유학생활을 하면서 동경에서 보냈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 만주에서 서울에 와서 살

45) 백낙청, 「시민문학론」 「창작과 비평」, 창작과 비평사, 1969, pp. 504-509.

46) 김화생, 「金洙暎詩 研究」, 제주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6. p. 35.

왔는데, 6·25 사변 중 의용군으로 징집되어 북한에서 훈련을 받다가 탈출하여 포로신세가 된다. 그리고 포로수용소에서 병원 통역원으로 일하게 된다. 앞에서 제시되고 있는 ‘일본→이북→삼랑진’을 통해 이러한 자신의 인생 경로를 정직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시인, 사무가, 농사꾼, 상인 등은 자신이 겪은 생활 속에서의 직업들이다. 그가 생활 속에서 겪은 직업의 변동이나 그에 따른 삶의 모습들을 인정하는 모습은 바로 소시민적인 삶의 태도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시 역시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다.

겨자씨같이 조그맣게 살면 돼
 복숭아가지나 아가위가지에 앉은
 배부른 흰새모양으로
 잠깐 앉았다가 떨어지면 돼
 연기나는 속으로 떨어지면 돼
 구겨진 휴지처럼 노래하면 돼

- 「長詩(-)」 1연

나같이 사는 것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나는 이렇게도 가련한 놈이 어느 사이에
 자꾸 자꾸 소심해져만간다
 동요도 없이 반성도 없이
 자꾸 자꾸 小人이 돼간다
 俗돼간다 俗돼간다
 끝없이 끝없이 동요도 없이

- 「강가에서」 5연

이 시들은 시인의 소시민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 자신을 비판하고 있다. 전쟁과 혁명을 통해 너무나도 쉽게 기만당하여 그 제물이 되고 있는 주변의 삶들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경직되지도, 허위에 감염되지도 않고 정직하게 현실을 바라보려 한다. 이는 초기시에 나타나는 ‘바로 봄’의 자세가 끊임없이 진실을 드러내려하는 그의 정직성과 더불어 전(全) 시기의 작품에 방법론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겨자씨’ 같이 ‘배부른 흰새’ 같이, ‘구겨진 휴지’ 같이 살아가는 자신의 삶은 동요

도 반성도 없이 자꾸만 소심해져가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소시민성을 폭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는 이미 현실과 자아의 갈등을 외부 세계와 함께 수용함으로써 동시대인과 자신을 하나로 묶고 있다. 그래서 그 자신에 대한 비판은 곧 동시대인들에 대한 비판이 된다.

파자마바람으로 닭모이를 주려 나가서
문지방 안에 夕刊이 떨어져 덩굴고 있는데도
심부름하는 놈더러
「저것 좀 집어와라!」 호령 하나 못하니
이렇게 돼서야 고만이지
어떻게든지 체면을 차려볼 궁리 좀 해야지

파자마바람으로 체면도 차리고 돈도 벌자고
하다하다못해 번역업을 했더니
卷末에 붙어나오는 역자약력에는
한사코 XX 대학 중퇴가 XX 대학 졸업으로 誤植이 돼 나오니
이렇게 돼서야 고만이지
어떻게든지 체면을 차려볼 궁리 좀 해야지

- 「파자마바람으로」 2·3연

金洙暎의 문학에 가치와 생명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힘은 그의 정직성에 있다. 그의 문학은 정직성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고발적 성격이 강하다. 이런 자기 고발적 성격은 소시민적 삶의 태도 중의 하나이다. 이 시에서도 신문배달원에게 신문을 잘 넣으라는 말조차도 체면을 생각해서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나, 번역한 책의 역자 약력 난에 잘못 기재되어 나오는 자신의 약력을 풍자하는 모습 속에서, 시인의 정직성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그가 여기서 폭로적인 자기분석을 통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소시민적 삶의 일상성 속에 간혀 있는 동시대인들에 대한 도덕적 질타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시인을 분노하게 하는 현실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지성의 작업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있다 絶頂 위에는 서있지

얇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중략)……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나
 정말 얼마큼 적으나-

- 「어느날 古宮을 나오면서」 5·7연

이 시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소시민적 삶에서 야기된 분노가 연민과 한탄으로 바뀌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저항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왕궁의 음탕'이나 '언론의 자유'와 같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설령탕집 주인, 야경꾼, 이발쟁이, 동회직원'과 같이 자신처럼 무력하고 미약한 존재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현실과 직접 맞부딪치지 못하고 '웅졸하게 반항'하는 자신을 '비겁하게 옆으로 비켜서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정직한 자기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소시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가 추구하는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사회에 대한 절망과 좌절의식은, 무력한 자신을 '모래, 바람, 먼지, 풀'등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비하시키면서 그의 분노와 항의를 내면으로 응축시켜간다. 따라서 상투적인 자기반성과 자학이 엮보이는 7연의 한탄은 소시민적 삶의 비애에 대한 닛두리이다. 그러나 이런 소시민적 삶의 태도에 국한되지 않고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7연에 나오는 한탄은 이상과 일상 생활의 괴리 속에서 오는 소시민적인 대립 정신과 좌절을 정직하게 드러냄으로써 건강한 시민의식을 획득하려는 통찰과 긍지라 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시 역시 전통의 인식을 통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소시민성을 새롭게 극복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예이다.

傳統은 아무리 더러운 傳統이라도 좋다 나는 光化門.
 네거리에서 시구문의 진창을 연상하고 寅煥네
 처갓집 옆의 지금은 埋立한 개울에서 아낙네들이
 양젓물 솥에 불을 지피며 빨래하던 시절을 생각하고
 이 우울한 시대를 패러다이스처럼 생각한다

버드 비쇼女史를 안 뒤부터는 썩어빠진 대한민국이
더러운 歷史라도 좋다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이라도 좋다
나에게 늦주발보다도 더 짹짹 울리는 追憶이
있는 한 人間은 영원하고 사랑도 그렇다

- 「巨大한 뿌리」 3연

이승원은 이 시를 “역사인식의 맹목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⁴⁷⁾고 평하고 있지만 시인이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이라도 좋다고 하는 것은 ‘진창’을 맹목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 자신의 현실, 모든 진보의 주어진 터전으로서의 자신의 전통이기 때문에 긍정하는 것이고, 뜨거운 열정과 매서운 비판이 하나가 된 태도로서 긍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⁴⁸⁾이 더 설득력을 지닌다. 전통과 역사는 비록 그것이 텅텅한 것이 못 된다 하더라도 시인의 ‘거대한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사랑 없이는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랑의 획득을 통하여 金洙暎은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어느 정도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이상을 토대로 보면 金洙暎이 지닌 소시민적 삶의 토대는 정직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의 정치적 상황을 주어진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는 소시민이다. 그러나 그는 현실적인 여건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가 시를 통하여 당대의 역사적 현실과 고난을 인식하고, 고통과 고뇌를 함께 하려는 모습은 바로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2) ‘사랑’의 확인

金洙暎은 정직한 자기 성찰을 통한 사고의 심화와 사물에 대한 독특한 인식 방법에 의해서, 후기시의 중심적인 주제인 ‘사랑’을 얻는다. 사랑은 그에게 현실에 대한 관심의 폭과 깊이를 더하게 했으며, 그가 역사적 상황 속에서 결핍되어 있는 것으

47) 이승원, 「金洙暎論」 「시문학」, 시문학사, 1983.4, p. 75.

48) 백낙청, 앞의 책, p. 336.

로 파악하고 되돌려 놓고자 했던 지배적인 이념이다. 전기시에 나타나는 ‘단절과 설움’은 ‘적’의 올바른 인식과 선택에 의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찾게된다. 이 극복의 방법, 치유의 방법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여기서는 金洙暎이 추구하는 ‘사랑’의 성격을, 그리고 그의 후기시가 ‘사랑’이란 주제의 확산을 통해 생활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인식되어 나타나는지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그가 삶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랑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그치지 않고 자신을 포함하는 삶, 즉 사회 전반의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글은 이러한 사랑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쓴 「生活의 克服」이란 글에서 ‘나는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하면서, 사람과 사람 간에 가로 놓인 무서운 장애물로부터 제거해야만 사람들간에 진정한 사랑이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 사랑의 장애물에 대한 그의 인식은 비단 인간 사이의 관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 국토분단의 현실은 사랑을 위해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지만 이 불행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 또한 사랑에 있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다. 즉 사랑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최선의 길이 완벽한 자유를 요구하는 것뿐이라는 논리와 비슷한 맥락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⁹⁾

金洙暎이 세계와의 화해와 적들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선택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랑이다. 그에 있어서 사랑은 끝없는 자기희생을 의미하는 종교적이거나 모성애적 사랑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허위성을 포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관용적 사랑이다.

사람이 사람을 아끼는 날
소음이 더욱 번성하다 남은 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던 날
소음이 더욱 번성하기 전날
우리는 언제나 소음의 二층

땅의 二층이 하늘인 것처럼

49) 이상옥, 앞의 책, p. 290.

이렇게 人情의 하늘이 가까와진
일이 없다 남을 불쌍이 생각함은
나를 또 나의 아들까지도

- 「여름밤」 4·5연

이 시에는 金洙暎이 생각하는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은 자신과 이웃의 삶과 더불어 사회와 역사의 구조적 삶에까지 미치는 것이며 그는 나와 인류를 대등한 무게로까지 사랑할 수 있는 깊이와 시인으로서의 안목을 갖고 싶어 한다. 즉 그는 사랑을 통해 자신과 적 또는 자신과 세계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現代式 橋梁을 건널 때마다 나는 갑자기 懷古主義者가 된다
이것이 얼마나 罪가 많은 다리인줄 모르고
植民地의 昆蟲들이 二四시간을
자기의 다리처럼 건너다닌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어째서 이 다리가 부자연스러운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 다리를 건너갈 때마다
나는 나의 心臟을 機械처럼 중지시킨다
(이런 연습을 나는 무수히 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反抗에 있지 않다
저 젊은이들의 나에 대한 사랑에 있다
아니 信用이라고 해도 된다
「선생님 이야기는 二十년 전 이야기이지요」
할 때마다 나는 그들의 나이를 찬찬히
소급해가면서 새로운 여유를 느낀다
새로운 歷史라고 해도 좋다

이런 驚異는 나를 늙게 하는 동시에 젊게 한다
아니 늙게 하지도 젊게 하지도 않는다
이 다리 밑에서 엇갈리는 기차처럼
늙음과 젊음의 분간이 서지 않는다
다리는 이러한 停止의 증인이다
그러한 速力과 速力의 停頓 속에서
다리는 사랑을 배운다

정말 희한한 일이다

나는 이제 敵을 兄弟로 만드는 實證을

똑똑하게 천천히 보았으니까!

- 「現代式 橋梁」 전문

이 시에는, 사랑은 세대간의 격차나 대립, 갈등하는 존재들 사이의 정신적 단절 상태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것이라는 인식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시의 ‘현대적 교량’은 해방 후의 과도기적 사회 상황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이 시에서의 과도기란 봉건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의 과도기, 일제적 잔재와 신생국적 의욕의 과도기, 구세대와 신세대가 교체하는 과도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과도기적 삶의 과정을 밟으면서 회고주의자가 되는 시인과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연결해주는 이해로서의 다리와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해 가는 사회 현실을 대변해주는 죄 많은 다리의 이미지는 金洙暎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갈등을 대변해 주고 있다. 金洙暎은 이 다리를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죄의식 속에서 건너면서 젊은 세대의, 늙은 세대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시인은 그들에게서 새로운 역사의 가능성을 느낀다.⁵⁰⁾ 젊은이와 늙은이를 결합시켜주는 이 사랑의 방법은 현재의 의식 속에서 과거를 연결시켜주는 역사의 주체화를 뜻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정신은 대상에 대해 ‘反抗’ 하게 하기보다는 ‘信用’ 하게 하고, 제기되는 반론들을 ‘찬찬히’, ‘여유’ 있게 사고하도록 만든다.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희한한 일이다.’ 그것은 ‘敵을 兄弟로 만드는 實證’이며 하나의 ‘驚異’인 것이다. 그는 敵과의 조화로운 공존이 사랑에 의해 가능함을 인식하고 있다.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 都市의 끝에
사그러져가는 라디오의 재갈러기는 소리가
사랑처럼 들리고 그 소리가 지워지는
강이 흐르고 그 강건너에 사랑하는
암흑이 있고 三월을 바라보는 마른나무들이

50) 이인순, 『시인 金洙暎 연구』, 전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7, p. 69.

사랑의 봉오리를 준비하고 그 봉오리의
속삭임이 안개처럼 이는 저쪽에 쪽빛
산이

사랑의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들의
슬픔처럼 자라나고 도야지우리의 밥찌기
같은 서울의 등불을 무시한다
이제 가시밭, 덩쿨장미의 기나긴 가시가지
까지도 사랑이다

왜 이렇게 벽차게 사랑의 숲은 밀려닥치느냐
사랑의 음식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난로 위에 끓어오르는 주전자의 물이 아슬
아슬하게 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의 節度는
열렬하다
間斷도 사랑
이 방에서 저 방으로 할머니가 계신 방에서
심부름하는 놈이 있는 방까지 죽음같은
암흑 속을 고양이의 반짝거리는 푸른 눈망울처럼
사랑이 이어져가는 밤을 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만드는 기술을 안다
눈을 떴다 감는 기술- 불란서혁명의 기술
최근 우리들이 四·一九에서 배운 기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소리내어 외치지 않는다
복사씨와 살구씨와 꽃감씨의 아름다운 단단함이며
고요함과 사랑이 이루어놓은 暴力의 간악한
信念이며
봄베이도 뉴욕도 서울도 마찬가지다
信念보다도 더 큰
내가 묻혀사는 사랑의 위대한 도시에 비하면
너는 개미이나

아들아 너에게 狂信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랑을 알 때까지 자라라
 人類의 종언의 날에
 너의 술을 다 마시고 난 날에
 美大陸에서 石油가 고갈되는 날에
 그렇게 먼 날까지 가기 전에 너의 가슴에
 새겨들 말을 너는 都市의 疲勞에서
 배울 거다
 이 단단한 고요함을 배울 거다
 복사씨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거다!
 복사씨와 살구씨가
 한번은 이렇게
 사랑에 미쳐 날떨 날이 올 거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같은 잘못된 시간의
 그릇된 명상이 아닐 거다



- 「사랑의 變奏曲」 전문

이 시에는 일상적 어법을 깨뜨리고 있는 행의 배열과 수사를 통해 일상적 논리를 초월하는 사랑의 위대함을 드러내려는 시인의 의도가 나타나 있다. 빈번하게 사용된, 때로는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남용된 ‘사랑’이라는 시어는 사랑의 힘에 대한 감동에서 오는 의식의 도취상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왜 이렇게 벽차게 사랑의 숲은 밀려다치느냐’, ‘난로 위에 끓어오르는 주전자의 물이 아슬/ 아슬하게 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의 節度는/ 열렬하다’, ‘사랑에 미쳐 날떨 날이 올 거다!’ 등의 구절이 이러한 의식의 도취상태를 드러내는 예들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사랑을 ‘욕망’, ‘슬픔’, ‘혁명’, ‘죽음’, ‘신념’, ‘都市의 疲勞’ 등과 관련시키고 있다. 이들은 시인이 세계와의 화해를 위한 사랑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한 보조관념들이다.

1연에서 시인은 ‘욕망’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발견하려는 의도를 밝힌다. 사랑은 대상을 긍정하거나 소유하려는 욕망의 소산이다. 이러한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라디오의 재갈거리는 소리’를 한갓 소음이 아닌 사랑의 속삭임으로 들리게 하

고, ‘프월을 바라보는 마른나무들이’ 죽음의 계절을 견디며 새봄에 꽃피울 ‘봉오리를 준비하고’ 있는 그 비밀한 움직임은 강가에 ‘안개처럼 이는’ 속삭임으로 들리게 한다.

2·3연은 사랑이 삶의 순간마다 인간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세상의 허위성을 제압하며, ‘가시밭 덩쿨장미의 기나긴 가시가지’가 상징하는 삶의 고통을 견잡을 수 없는 희열로 전환시키는 동적 능력임을 깨닫게 한다. 그 순간 사랑은 ‘벽차게’ ‘밀려다치’는, 삶의 의욕하게 만드는 욕망의 ‘슌’이 된다.

4연에서는 사랑은 ‘열렬’하면서도 결코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스스로 ‘節度’를 지닌 것이며,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사랑의 연속임이 진술된다. 그 사랑은 ‘죽음 같은 암흑 속’ 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고양이의 반짝거리는 푸른 눈망울’ 같은 예지이다. 시인에 의하면 사랑은 이러한 절도와 예지에 의해 완성되는 기술이다. ‘四·一九’를 통해 사랑의 절도와 예지를 습득하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들은 소리 내어 외치지 않게’ 되는 것이다.

5연에서는 ‘복사씨와 살구씨와 꽃감씨의 아름다운 단단함’ 속에 잉태되어 있는 생명과 ‘고요함과 사랑이 이루어놓은 暴力’ 이 상징하는 시인의 내면세계의 진통을 통해 형성된 ‘信念’을 대비시키고 있다. 이것은 우주의 생명 현상과 인간의 정신활동이 모두 사랑의 행위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생명과 신념은 사랑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지극히 작은 일부이다.

6연에는 사랑의 위대함과 가치를 인식한 시인이 그 체험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의도가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위대함은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都市의 疲勞’ 즉, 삶의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것임이 강조된다. 사랑은 오랜 인고를 통해 여문 복사씨의 ‘단단한 고요함’ 속에 잉태된 생명이며 ‘人類의 종언의 날’ 까지 지속될 영원한 가치이다. 이러한 사랑의 위대함에 도취된 시인의 감성은 ‘복사씨와 살구씨가/ 한번은 이렇게/ 사랑에 미쳐 날뛴 날이 올 거다!’ 라는 영탄으로 이어진다. 사랑은 그러한 역설적 논리까지도 ‘잘못된 시간의/ 그릇된 瞑想’으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 태도를 시인에게 확립시켜 준다.

사랑은 세계와의 화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바탕이다. 金洙暎은 이 시를 통해 사랑이야말로 삶의 원동력이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영원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있다.

지금 나는 二十一개국의 정수리에
사랑의 깃발을 꽂는다
그대의 눈에도 보이도록 꽂는다
그대가 봉변을 당한 食人種의 나라에도
그대가 남치를 당할 儼한 共產國家에도
보이도록

- 「世界一周」 3연

여기에서 金洙暎의 사랑에 대한 생각은 개인과 가족, 사회 또는 전인류적인 차원까지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된 시의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랑에 대한 그의 확신은 '잘못된 나라' 에까지 사랑의 깃발을 꽂는 행위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차이까지도 사랑으로써 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시들을 토대로 사랑의 의미를 규정한다면, 사랑은 세계 인류의 삶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즉, 사랑은 삶의 방향으로서 그 대상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전 인류의 차원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차이까지도 포용함으로써 '敵'을 형제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랑은 金洙暎의 후기시의 주요한 내용적 특성을 이룬다.

V. 金洙暎 詩의 詩史的 意義

金洙暎의 시세계는 자조, 사랑, 인간회복, 자유, 정직 등으로 설명될 만큼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그의 시세계를 이루는 근거는 현실 인식이다.

金洙暎의 현실 인식은 수용적이고 긍정적이기보다는 배타적이며 부정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金洙暎의 시를 참여시로 한정짓는 사람도 있으나, 참여시라고 단정짓기는 개인주의적 요소가 너무나 많다. 즉, 金洙暎은 ‘나’를 강하게 드러내면서도 ‘우리’를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노래하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金洙暎은 우리 시문학사상 독특한 개성을 가진 시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金洙暎 시의 진정한 가치나 시사적 의의는 그의 시 자체뿐만 아니라 그의 시의 연장선상에 있는 후배 시인들의 시적 성취를 통해서도 찾아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金洙暎의 시세계는 어느 의미에서는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니라 완성 단계에 이르는 궤도에 진입한 미완의 것이기 때문이다.

金洙暎의 시에 나타나는 현실 인식과 관련한 시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실 인식을 통해 인간성의 회복과 같은 시정신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이다. 金洙暎은 현실의 인식을 통해 그의 문학을 이루었다. 그의 산문은 삶과 예술의 일치를 시도했던 그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언어와 싸우는 시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불안정한 사회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하여, 자유와 사랑을 내세웠던 그의 신념은 지금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둘째, 현실 인식을 위한 매개체로서 소재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金洙暎은 ‘부부 싸움, 도둑, 신문팔이, 양계의 수지타산보고’ 등 일상적인 삶의 모습 전부를 詩化했으며, ‘이, 노고지리, 거미, 개미, 풍뎅이’ 등 비속한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진, 책’ 등 우리 생활 속의 소재들을 모두 시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는 전통적인 생활상이나

소박한 자연을 노래하던 종전의 시적 관습을 탈피하고, 시는 곧 생활의 절실한 반영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셋째, 현실의 인식을 표현하기 위한 시어의 확대 및 일상성을 들 수 있다. 우리의 근대시가 전통적으로 단시적 미학에 입각하여 절제되고 압축된 언어를 사용하여 왔음에 비해서, 金洙暎은 직선적이고 직접적인 시적 묘사를 통해 산문적 서술체의 세계로 접근해 갔다. 시에 산문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는 종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비어들을 과감하게 도입함으로써 시어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넷째, 모더니즘적 기교나 수사보다는 현실 인식의 표현방법이 더 중시된다는 점이다. 그의 시에서는 시의 방식과 삶의 방식, 즉 내용 없이는 형식 또한 있을 수 없다는 合一的인 신념이 현실 비판과 사회 의식을 기민하게 반영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점은 1960년대 이후 시단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상을 통해 金洙暎의 시를 평가하면, 그의 시는 사랑의 시이며, 자유의 시이며, 인간성 회복을 위한 시이다. 이러한 평가는 그의 시의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창작 면에서도 일상어의 사용이라든지 산문성의 도입 그리고 소재의 다양성 등 우리 시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점, 그리고 순수 對 참여의 논쟁에서 보여준 독자적인 시론과 새로움의 시학이 우리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그를 서정주·김춘수와 함께 우리 시단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남긴 시인 중 한 사람으로 기록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VI. 結論

金洙暎은 한 시대의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픔에 공감함으로써 시인의 사명을 다하려 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방황, 갈등, 아픔, 좌절 등을 시 속에 진실하게 담아냄으로써 시적 감동을 성취한 인간적인 시인이기도 하다.

시와 생활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시인이란 현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자이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그의 시를 상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초현실적인 시이거나 현실 세계에 무관한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데 만족하는 개인주의적 시가 아니라, 역동적인 현실세계와 그 속에서 생활하는 평범인, 혹은 평범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내는 시에게 했다. 따라서 金洙暎의 시는 당시의 시대 상황 혹은 그의 개인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제, 지금까지 본론에서 시도한 분석 결과에 따라 金洙暎 시에 나타나는 현실 인식의 유형과 양상을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金洙暎의 시에 나타나는 현실 인식의 유형은 크게 사회 참여를 통한 현실 인식과 생활 체험을 통한 현실 인식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 참여는 정치적 자유의 획득을 위해 이루어진다. 그의 현실 인식은 사진이나 서적 등의 사물이나, 노고지리 등 자연물을 매개로 하여 나타난다. 사회참여의 이유가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는 데 있는 것임은 4·19를 전후하여 발표된 그의 시에서의, 지극히 관념화된 혁명론, 관념적 자유, 관념적 투쟁 의식이 직설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생활 체험을 통한 인식의 유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글쓰기 초반부터 후반에 이르기까지의 金洙暎의 의식이 '서러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의 시에서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느끼는 내적·외적 상황에 대한 외로움의 형상화로 나타나고 있다.

2) 金洙暎의 초기시에 나타나는 어휘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보다'이다. 그는 '바로 보기'를 통하여 세상에 대한 허위성을 발견하고 자아의 진실을 구

현하며 세상에 대한 저항적 의지를 얻고 있다

3) 金洙暎의 시들을 창작 연도로 살펴 볼 때 ‘설움’은 195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쓰여진 시들에서의 중요한 모티프(motif)이다. ‘설움’의 연원은 바로 6·25를 전후한 우리 나라의 역사에 있다. 인간 정신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비극 앞에서 천성적으로 자기 자신의 일 이외에는 무관심했던 金洙暎에게 ‘설움’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4) 金洙暎에게 있어서 현실은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일’ 들이 전개되는 곳이며, 우리 양심의 24시간이 온통 고문으로 연속되는 곳이다.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은 양심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자유이다. 여기서의 자유는 현실 상황에 대한 金洙暎의 인식이다. 그는 자유를 시적, 정치적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것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에 대해 노래하며, 또한 인간의 구체적 삶을 제시하는 터전으로서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다. 현실 상황이 폭력적이고 권력 지향적이라면, 자유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할 만큼의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金洙暎이 4·19를 전후하여 현실참여 지향의 시들을 창작한 데에는 이러한 자유 의지가 그 기저를 이루고 있다.

5) 金洙暎의 시에 등장하는 ‘敵’의 의미는 金洙暎 자신일 수도 있고, 자유를 억압하는 이 시대의 모든 것일 수도 있다. 즉, 역사의 파괴자, 정직한 사회를 방해하는 장애물, 정당화될 수 없는 일체의 사회·문화적 우상 등 여러 가지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6) 金洙暎이 지닌 소시민적 삶의 토대는 정직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의 정치적 상황을 주어진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는 소시민이다. 그러나 그는 현실적인 여건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가 시를 통하여 당대의 역사적 현실과 고난을 인식하고, 고통과 고뇌를 결코 피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7) 金洙暎 시에 나타나는 사랑은 세계 인류의 삶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위대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랑은 삶의 방향으로서 그것이 적용되는 대상은 개인

적인 차원에서부터 전 인류의 차원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며,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차이까지도 포용하여 '敵'을 형제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랑은 金洙暎 후기시의 내용적 특성이다.

이렇게 金洙暎의 현실 인식은 끊임없는 실험과 변모,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으로 나타난다. 그는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새로운 시세계를 부단히 창조해 내고자 했기 때문에 초기시의 모더니즘적 난해성과 비약에서부터 4·19이후의 급격한 변모를 거쳐 <사랑의 變奏曲> 같은 원숙한 시세계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 따라서 金洙暎은 그의 현실 인식을, 시를 통해 형상화했고 그것은 우리 현대시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기본 자료

김수명 편 『金洙暎 전집 I』, 집문당, 1983

김수명 편 『金洙暎 전집 II』, 집문당, 1983

2. 단행본

강만길 『韓戰現代史』, 창작과 비평사, 1985

김병택 『바벨탑의 언어』, 문학예술사, 1986

김옥동. 「「광장」을 읽는 일곱가지 방법」, 문학과 지성사, 1996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 서울대 출판부, 1993

———. 김우종의 30인 공저.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89

김윤식·김 현 『韓戰文學史』, 민음사, 1984

김종운. 『金洙暎 문학 연구』, 한샘출판사, 1994

김 현 『한국 현대시 작품론』, 문장, 1981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1945-1990)』, 민음사, 1993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편 『원색세계대백과사전7』, 동아출판사, 1983

송승환 『한국 현대시 제대로 읽기』, 우리문학사, 1998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96

이선영 엮음. 『문예사조사』, 민음사, 1997

이승훈. 『한국현대시론사』, 고려원, 1995

———. 『문학 상징사전』, 고려원, 1995

이은봉. 『시와 리얼리즘』, 공동체, 1993

———. 『한국현대시의 현실인식』, 국학자료원, 1993

정한모 『한국 현대시의 현장』, 박영사, 1983

최하림 편 『한국현대시인연구 ⑨ - 金洙暎』, 문학세계사, 1995

황동규 편 『金洙暎의 문학 - 金洙暎 전집 별권』, 집문당, 1983

3. 논문 및 평론

강용식. 『金洙暎의 시 <풀> 연구』 『경희어문학 제 7호』,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1986

강현국 『아버지 콤플렉스의 한 양상 金洙暎의 경우』 『국어교육연구2』, 경북대 국어교육연구회, 1980

강희근. 『金洙暎 시 연구』 『한국문학연구 제 8호』, 동국대 한국문학 연구소, 1985

고재석. 『金洙暎의 자유와 바예의 시학』 『한국문학연구 제 13호』, 동국대 한국문학 연구소, 1990

- 김동환 「金洙暎의 시적 주제」 『선청어문 제 13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1982.
- 김영옥 「金洙暎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 김정훈 「金洙暎 시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金洙暎 시연구 I」 『국제어문 제 8집』, 국제대 국제어문학연구회, 1987.
- 「金洙暎 시연구 II」 『국제어문 제 9·10집』, 국제대 국제어문학연구회, 1987.
- 김주영 「교양주의의 붕괴와 언어의 범속화」 『정경문화』, 1982 5
- 김창호 「金洙暎 시의 공간구조와 상상력의 지향성」, 제주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김화생 「金洙暎 시연구」, 제주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김현승 「金洙暎의 시사적 위치와 업적」 『창작과 비평』, 창작과 비평사, 1968 겨울.
- 권영민 「金洙暎論」 『승전대 논문집 제 11집 - 인문과학편』, 승전대학교, 1981.
- 박종추 「金洙暎의 시정신 고찰」, 조선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백낙청 「시민문학론」 『창작과 비평』, 창작과 비평사, 1969 여름호.
- 「金洙暎의 시세계」 『현대문학』, 1968 9.
- 백진기 「민족현실과 金洙暎 문학의 소시민적 한계」 『월간중앙- 150호』, 중앙일보사, 1988.
- 배은미 「金洙暎 모더니즘의 현실참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서우석 「金洙暎: 리듬의 회열」 『문학과 지성』, 문학과 지성사, 1978 봄.
- 서준섭 「1960년 이후의 한국 모더니즘 시의 전개」 『현대시사상 제 2호』, 고려원, 1990.
- 송재영 「시인의 시론」 『문학과 지성』, 문학과 지성사, 1976 봄.
- 이광길 「金洙暎 시의식 연구」,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이승원 「金洙暎論」 『시문학』, 시문학사, 1983 4월호.
- 이어령 「서랍 속에 든 ‘불온시’를 분석한다」 『사상계』, 1968 3.
- 이은정 「金洙暎 시의 수용양상 연구」 『연구논집 제 18집』, 이화여대 대학원, 1990.
- 이인순 「시인 金洙暎 연구」,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이영섭 「金洙暎의 <新歸去來> 연구」 『연세어문학 제 18집』,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1985.
- 오성호 「시에 있어서의 리얼리즘 문제에 관한 시론」 『시와 리얼리즘』, 공동체, 1993.
- 유재천 「金洙暎의 <孔子的 生活難>」 『연세어문학 제 17집』,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1984.
- 정영호 「金洙暎 論」 『월간문학 제 20권 6호』, 월간문학사, 1987.
- 조준형 「金洙暎 시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번역 도서

- 루시앙 골드만 『문학사회학방법론』 박영신·오세철·임철규 譯, 현상과 인식, 1984.
- M 그리제바하 『문학연구의 방법론』 장영태 譯, 기린원, 1989.
- 클로드 뒤세·앙리 미테랑 『사회비평과 이데올로기 분석』 조성에 譯, 백의, 1996.

<abstract>

**The study of cognition appeared
in Kim Soo-Young's poems
- On the focus of the type and the aspect**

Kang, Young-Gi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Byung-Taek



There are various aspects in Kim Soo-Young's poetic world, such as self-reliance, love, recovery of humanity, freedom, honesty. The basis of this poetic world is "cognition of reality". Kim Soo-Young's cognition of reality is not so much recipient and positive as exclusive and negative. From this viewpoint some people limit his poetry as "participation-oriented poem", but there are too many individual facts to conclude his poems as "participation-oriented poem". That is, Kim Soo-Young includes "We" expressing strongly "I", and he doesn't give up "I" expressing "We". From this viewpoint we can call Kim Soo-Young as a poet who has a unique personality in our history of poetic literature. However, in strict meaning, true value and historic significance of Kim Soo-Young's poems must be considered through not only his poetry itself, but his followers' poetic achievement, because, in other

meaning, Kim Soo-Young's poetic world didn't reach to the stage of completion but an unfinished thing entered into the orbit of the stage of completion. Now, I will summarize and arrange the contents of his poetry dealt with the type and the pattern of the cognition of reality appeared in his poem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rough my thesis.

1) The type of "cognition of reality" appeared in his poems is divided into "cognition of reality" through the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cognition of reality" through the experience in actual life.

Participation in society is achieved for gaining political freedom. The cognition appears through the mediation by things like pictures and books and by the natural thing like skylark. The reason of the participation in society is gaining political freedom, because idealized thought of revolution, ideal freedom, ideal consciousness of strife are directly expressed in his poems presented about the time of 4·19.

What we can know about the type of cognition through the experience in actual life is that his consciousness from the early stage of his writing to the latter part of the stage is based on "grief". The figuration of loneliness related to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through the experience in actual life is expressed in his poetic literature.

2) The word appeared most frequently among words appeared in his poems of the early stage is "see properly". Through this "seeing properly" he finds falsehood about the world and gains will of the resistance against the world achieving his ego's truth.

3) If we consider Kim Soo-Young's poems in chronological order of writing, "grief" is important motif in his poems written from the early and the middle of 1950s. The basis of "grief" is in our history about the time of Korean War. In extreme tragedy broken down the limit of human spirit "grief" couldn't help

appearing remarkably to Kim Soo-Young who is innately indifferent to other things except his own work.

4) To him reality is the place where stifled things cannot bear to see through eyes happen, 24 hours of our conscience becomes the continuity of the torture. What he chose was freedom to overcome the pain of conscience at that time. This freedom is Kim Soo-Young's cognition about the real circumstances. He thinks freedom as poetic, political ideal, writes about conditions that prevent its achievement, and it also interested in political, social circumstances as the base that presents human concrete life. That is, if the real circumstance is violent and power-oriented, it means that freedom has to risk its life in front of the power. So we can know that this kind of 'free will' is based on the participation-oriented poems written about the time of 4·19.

5) The meaning of "enemy" appeared in Kim Soo-Young's poems can be Kim Soo-Young himself, be everything of his contemporary age that presses down freedom. That is, the meaning of "enemy" can be considered as destroyer of history, obstacle that disturbs honest society and whole social, cultural idols that cannot be justified.

6) Kim Soo-Young's attitude toward life of the lower middle class is based on honesty. He is a member of the lower middle class if we consider the given political circumstances of 1960s. He is trying to overcome and match the real circumstances though he accepts them. What he recognizes contemporary historic hardship that never avoids the pain and the agony through his poems is the evidence that he overcomes his attitude of the lower middle class.

7) Love appeared in his poems is a great idea that can bind human life of the world. That is, love is the direction of life. Its object includes from the individual dimension to whole human dimension, and plays a role that makes "enemies" into "brothers" including the difference between culture and ideology.

This love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contents in his poems of the latter stage. As this, Kim Soo-Young's cognition of the real life appears as the experimentation and transfiguration and as the struggle for social justice. Because he had an ability to create continuously new poetic world through the struggle against himself, he could reach the stage of matured poetic world like "Love Variation" from the modernistic complexity and the leap in his poems of the early stage to the stage of sudden change after 4·19.

Therefore Kim Soo-Young transfigured his poems through the cognition of reality, and we can say that this figuration played a role to promote the level of our modern poetry to a higher level.

